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제2차 열린포럼

부·울·경 광역문화재단 협의회 출범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울산문화재단
ULSAN ARTS AND CULTURE FOUNDATION

경남문화예술진흥원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울산문화재단
ULSAN ARTS AND CULTURE FOUNDATION

경남문화예술진흥원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Program

구분	시간	세부 내용
1부	14:00-14:05	[개회]
	14:06-14:10	[협약서 서명]
	14:11-14:20	부·울·경 광역문화재단 협의회 출범 공동선언문 낭독
	14:21-14:30	[축하영상]
2부	14:31-15:00	[기조강연] '문화의 사회적 가치, 협력, 네트워크' • 김희근(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
	15:01-15:40	[발제 1] '사회문제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발제 2]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예술 협력 방안' • 김태영(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15:41-15:55	[휴식]
	15:56-16:50	[종합토론] 좌장: 윤성호(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지역별 사례발표 • 부산) 김정주(가치예술협동조합 대표) • 울산) 서정민(울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 경남) 장원재(사회적협동조합 김해문화네트워크 이사장)
	16:51-17:00	[폐회]

Contents

발제 1 6p

사회문제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 정 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발제 2 24p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예술 협력 방안
김 태 영(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종합토론

토론: 지역별 사례발표

- **좌장)** 윤 정 호(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산)** 김 정 주(가치예술협동조합 대표) 58p
- **울산)** 서 정 민(울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60p
- **경남)** 장 원 재(사회적협동조합 김해문화네트워크 이사장) 62p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

발제 1

사회문제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조 정 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 문화 정책이 시대와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공적지원관점에서 본 예술경영 & 문화정책

1940년대

영국 Arts Council
출범(1946)
2차세계대전 후, 심리적
상처 치유 목적을 위해
국가차원의 문화예술지원

→

1960년대

보몰과 보웬의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1966)
미국에서 예술경영 시작과
함께 문화예술 공적
지원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가치 확산 주장

→

1980년대

존 마이어스코의
'영국에서 예술의 경제적
중요성'(1988)
경제위기 속에서 영국 내
예술의 경제적 중요성 역설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의
직접적 효과(direct effect),
spillover 효과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확산

→

2000~2010년대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분권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해
도시정책의 핵심요소

→

오늘날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문화예술의 치유 및
복원성(resilience)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정책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정책은 사회정책이다

문화예술 지원의 당위성과 예술의 존재론적 의미를 사회적 합의로 발전
공적재원 활용한 커뮤니티 아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 담당
사회 자본 증대, 커뮤니티 재건과 발전, 사회 변화, 인적 자본의 발달 등 예술의 긍정적 영향 제시

코로나19 위기를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의
애드보커시 기회로 활용하자

지역문화재단

2차대전 후 전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영국의 arts council이 설립된 것 처럼, 포스트 코로나 19는 다시한번 '치유의 문화정책적 가치'를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는 애드보커시 활동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것임

| 문화정책은 사회정책이자 도시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의 중심에 서야 할 문화예술

오늘날 전세계 문화정책의 과제는 예술작품의 창작지원과 문화향유라는 좁은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성 갖춘 내용을 포함하며, 동시에 도시재생 등 공공성과의 연계가 기본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영역이 문화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술작품의 창조와 감상 기회 제공은 문화정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 **예술** **정책**

도시정책 : 도심부 활성화 정책 | 지역커뮤니티 정책 | 산업정책 | 교육·복지

지금까지	현재	앞으로
문화시설 정비 감상사업 시민문화단체 지원 예술가 지원 청년, 신진 예술가 육성	↓ 도심부 활성화 정책 마을만들기와 문화예술정책 연계	↓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으로서 문화예술정책

- 문화정책과 타 분야 정책과 관계 횡단적 정책을 통해 상승효과 기대
- 다양한 문화 접촉을 토대로 한 타 분야(산업, 교육, 의료, 복지 등)와 교류
- 도시계획과 협력 한 행정과 도시 디자인에 기여
- 문화콘텐츠의 융복합에 따른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문화의 영향력 확산 등
- '정책의 관계 횡단적' 시점을 둔 경향은 전세계 도시 문화 비전 및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국가	연구	예술의 사회적 영향 분류	
미국	the Arts + Social Impact Explorer	·사회 기반시설 (Infrastructure) ·교육 (Education) ·외교 (Diplomacy) ·건강과 복지 (Health & Wellness) ·환경 (Environment)	·혁신 (Innovation) ·사회 정의 (Social Justice) ·문화유산 (Cultural & Heritage) ·종교 (Faith) ·경제 (Economy)
프랑스	The evaluation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 culture, arts and development	·지역사회체계 수립 (Community level) ·범죄 감소 (Crime reduction) ·시민 교육을 위한 여가시간 (Leisure time for citizenship education)	
영국	A review of the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Sport	·예술과 건강 (Arts and Health) ·예술과 웰빙 (Arts and Wellbeing) ·예술과 범죄 (Arts and Crime) ·예술과 사회자본 (The Arts and Social Capital) ·예술과 교육 (The Arts and Education) ·예술과 복합적 영향 (Art and Multiple impacts) ·사회변화의 촉매로서의 역할 (The Arts as a Catalyst for Social Change) ·사회적 포용 (Social Inclusion) ·도시재생 (Regeneration)	
캐나다	The Social Effects of Culture	·문화,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개발 (Culture, sustainability and community development) ·문화, 웰빙과 사회적 결합 (Culture, wellbeing and social cohesion) ·문화, 소통과 참여 (Culture, connectedness and participation) ·문화와 시민의식 (Culture and citizenship) ·문화와 건강, 교육 Culture and health / education)	
호주	SOCIAL IMPACTS OF CULTURE AND THE ARTS, WA	·3가지 소셜 아웃컴 (Social Outcomes)분류 ·건강 (Health)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교육 (Education)	
일본	社会課題の解決に貢献する文化芸術活動の事例に関する研究調査	·도시·지역 브랜딩, 관광산업 진흥, 산업 진흥 ·유휴 건물 활용, 청년들 전입 증가, 낙후된 지역 이미지 업·치안 회복·유지 ·마음의 케어, 건강 증진 ·개인 존재의식, 정체성 확인 ·사회적 포용력 ·표현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육성	

| 코로나 위기, 미국은 예술 애드보커시 활동이 활발합니다.

미국 Americans for the Arts의 예술 애드보커시

코로나 19 위기, 지역 예술 기관에 투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 견실한 일자리 분야를 지원한다
- 관광을 장려한다
- 시민의 자긍심을 높인다
- 지역 상거래를 촉진한다
- 공동체를 통일한다
- 군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한다
- 창조경제를 성장시킨다
-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 건강한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 사회적 응집력을 구축한다

AFTA의 정책적 시사점

예술의 공적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미국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문화예술의 공적지원과 사회적 영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술의 '치유의 힘'을 강조

| 코로나 위기, 예술 치유가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술을 통한 심리적 거리 좁히기

예술의 힐링 및 치유, 전 세계인의 연대를 통한 예술의 가치 확산
#Balcony Concerts #TogetherAtHome Concert Series
#Royal Opera House & NHS

| 미국의 Arts + Social Impact Explorer가 눈에 띕니다.

IMPACT POINTS

ARTS-RICH COMMUNITIES HAVE 18% LESS SERIOUS CRIME AND 14% FEWER REPORTS OF ABUSE AND NEGLECT

CULTURAL PARTICIPANTS ARE 2X AS LIKELY TO VILUNTEER

75%
FEWER INFRACTIONS

ARTS INSPIRE
1,000s
TO ACTION

$43.3 BILLION
IN SAVINGS FROM REDUCED DOCTOR VISITS

63%
REVCED RISK OF DEMENTIA

50% OF
HOSPITALS HAVE ARTS PROGRAMS

24%
IMPROVEMENT IN CLINCAL OUTCOMES

| 문화예술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문제 완화 위한 문화의 영향 확산

IMPACTS ART MATTERS
Spread the word!

1

건강과 치유

2H(Health & Healing) 캠페인

문화예술은 시민 건강을 증진하며, 코로나 19 우을증 치유에 기여하여 시민 삶의 웰빙 추구

2

범죄 예방

문화예술 CEPTED

범죄율 전국 1위, 부산 문화예술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교정시설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3

고령화 대응

삶의 활력↑ 의욕 저하↓

고령화 지수 전국 광역 시도 1위, 부산 문화예술로 고령인구의 삶에 영향 예술활동으로 치매 예방

4

사회적 고립 예방

부산 사회 특화 문제 완화

광역 시도 자살지수 비교 3위 1인 가구 전체 가구 중 20% 육박 고독사, 자살 등 사회적 문제 완화

5

환경문제 대응

바다와 환경을 지키는 예술

미세먼지 평균 농도 WHO 2.2배 해양 쓰레기 문제 심화 업사이클 아트 통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6

포용과 갈등해결

사회 포섭 위한 문화 다양성

차별과 배제에서 차이를 인정세대간, 계층간 갈등 완화 예술이 이끄는 사회 통합의 표용 도시, 부산

7

지역 공동체 회복

문화재생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 역활 확대 사회, 인적 자본 증대 커뮤니티 아츠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Logic Tree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의 사회적 참여로 때로는 새로운 예술이 탄생합니다.

예술의 사회적 영향 확산은 예술가에게는 예술의 창의성과 수월성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활동들은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예술 창조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예술 접근성 향상에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 결국 예술의 사회 참여를 통한 예술의 가치 확산은 문화정책의 수월성과 접근성의 조화에 기여를 하게 된다.

| 새로운 예술, Hospital Art

호스피탈 아트는 1975년 전 세계의 병원에서 시작한 예술 프로젝트에서 시작 되었는데, 1984년 미국에서 예술이 평온함과 사랑을 주자는 미션으로 'The Foundation for Hospital Art' 설립됨
현재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통해, 재단은 195개국 6,000개 이상의 병원과 양로원에 4만8,000점 이상의 그림을 기증

단지 의료시설을 예술 「작품」으로 장식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들과 교류하면서 병원을 따뜻한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작품 제작과 참여의 프로세스, 작품의 질적 수준을 강조

호스피탈 아트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의료분야에서도 주목하며, 활성화 하는 분야로 런던은 현재 전세계 Hospital Art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 팬데믹에도 다양하고 우수한 단체들이 음악, 연극, 워크숍, 전시, 스탭 양성 프로그램들을 충실히 갖추고 활동

| 새로운 예술, ABLE ART & Inculsive Arts

에이블 아트

에이블 아트 운동(Able Art Movement)은 1995년 일본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에아블 아트 재팬(Able Art Japan)이 주도. 현재는 장애인 예술 자체를 에이블 아트라 부르기도 함.

에이블 아트의 목적은
1. 가치 평가 절하했던 장애인 예술의 미학적 가치 통한 장애인 위상 제고
2.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 되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함

일본의 에이블 아트 원류는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장애예술운동(D.A.M.)으로 다양한 활동가, 예술가, 기획자들이 모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된 장애인의 권리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음

Able ARTS Work는 1981년 미국에서 설립된 에이블 아트의 대표적인 단체로, 예술 치유와 교육, 음악, 댄스 무브먼트, 연극, 비주얼 아트, 미디어, 디지털 아트를 통해 발달장애, 자폐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에이블 아트 관련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포용 예술

영국에서 시작된 포용 예술은 학습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협업과 공동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예술

포용 예술의 협력적 과정은 쌍방향의 창조적 교류를 지원하는 '교환의 미학(aesthetic of exchange)' '모두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없는 것과 같다'는 철학 유지

세계 포용예술 네트워크(International Included Arts Network)은 전세계 장애인, 장애·비장애 예술인위한 대표적인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전 세계 관객들에게 포용 예술 작품 및 작업 소개, 지역사회와 고용에 대한 정보를 연결하여 예술가들의 사회적 참여 가능성 확대와 작품 홍보

| 새로운 예술, Intergenerational Arts

세대간 예술(Intergenerational Arts)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의 예술적 교류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소통과 협업 기술, 창조적 사고를 향상 시키고자 영국의 예술단체 Magic Me가 고안한 예술 장르 Magic Me의 대표적인 세대간 예술 프로그램인 Arts & Ages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충실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노인에게 동시에 사회적 관계 형성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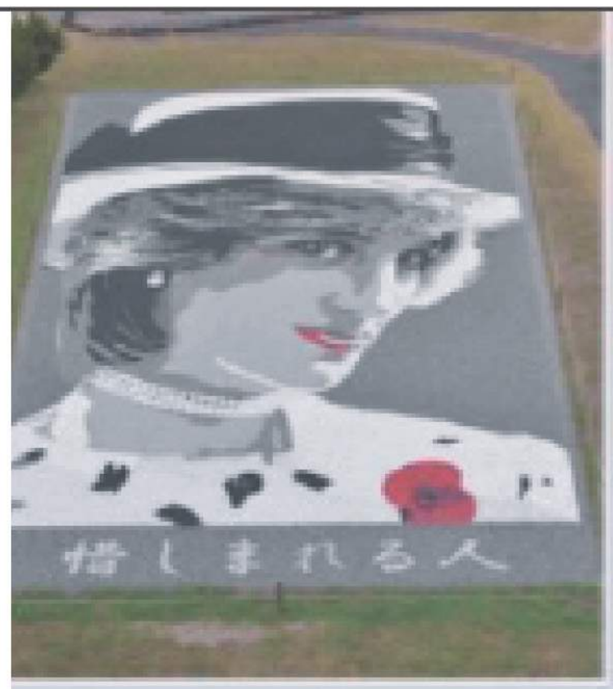
예술을 통한 세대간 공감 프로젝트의 주요목표로 삼는 세가지는
“예술의 질적 목표 향상”, “개인적 자아 개발”, “공동체 개발”임

세대간 예술의 구체적인 효과는
‘아이들의 건강상태 향상과 사회적 소통 능력 향상’ ‘고령자의 고독이나 사회적 고립 완화’
‘참여 스탭 및 예술가들의 스킬 업’

| 새로운 예술, Rice Paddy Art

1993년 일본 아오모리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고안

작품의 제작과정과 우수성으로
매년 국내외 주요 언론 보도



탄보아트
Rice Paddy Art

논을 캔버스로 활용
색이 다른 벼를 사용해 물감 대신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예술 장르

생산자, 참여자, 소비자가
함께 하는 활동 통한 신뢰 관계 형성
Agritourism으로 지역 활성화

어린이, 시민들 참여의 농사체험
예술적 체험을 통한 상상력 향상

농촌 재생, 공동체 회복의 메시지 담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예술 장르'

| 사회참여로 나타난 예술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목표의식으로 시작, 지속가능한 방향성 설정과 추진 위한 조직 구성

'참여를 넘어 작품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은 단순 참여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예술가는 협업을 통해 작품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

지역사회 각 분야 협력을 통한 가치 확산, 국제적 연대의 네트워크 결성 통한 사업 확대 추진

| 문화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부울경 협력 체계를 제안합니다.

비전 —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부·울·경

↑

미션 — 부·울·경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과 지식공유

↑

추진체계 — 부·울·경 문화통합 범 실무기구 구축

↑

전략과제

- 문화적 치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재생
- 문화를 활용한 재난, 환경문제 대응
- 문화공동체를 통한 사회 갈등 해결

| 부울경 문화예술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과연 문화예술 옹호, 후원과 상생협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상생협력 네트워크

기업·문화재단·예술인이 문화예술후원을 시혜와 수혜의 관점이 아닌
상행·협력의 관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파트너쉽을 말합니다.

문화자원의 공유

기업·문화재단·예술인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공유합니다.

1. 공간공유 = 창작공간
2. 예술인의 창의적 일자리
3. 기업의 경영 노하우 지원

협력제휴 네트워크

기업·문화재단·예술인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확산을 위해 협력합니다.

1. 사회공헌 공동 캠페인
2. 사회문제 해결 협업 프로젝트
3. 기업·문화기관 공동 기획

포용과 나눔의 문화

기업·문화재단·예술인은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합니다.

혁신과 창의의 메세나

기업·문화재단·예술인의
창의성 지원으로 지역사회를 혁신합니다.

생활속 문화
기업이미지 개선
혁신과 창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 부울경 문화예술 상생협력 네트워크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부울경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동 예시

고령자 치매 회상법

치매 환자 대상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예술가 주도의 기억 회상법 고령자의
창의적 표현 지원

고독사 완화

사회적 고립감 심한 1인 가구
대상 기업, 재단, 정신보건기관
협약 통한 문화예술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 제공

예술 치유

호스피탈 아츠 공동 추진
국가재난 및 사고로 인한 우울증
예술 치유 포스트 코로나 힐링
콘서트 공동개최

해양 오염 완화

해양 오염 문제해결 위한 플로깅 해양
쓰레기 재활용 통한 업사이클링 아트
부울경 공동사업으로 전국 확대

코로나 팬더믹은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꿀 것이다.

문화는 늘 그랫듯이
도전과 응전을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공동체
조성 방안

발제 2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예술 협력 방안

김 태 영(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공동체 조성방안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김태영

목차

Ⅰ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당위성

Ⅱ 국제 메가시티 추진현황

Ⅲ 동남권 메가시티 가능성

Ⅳ 동남권 메가시티 기본구상

Ⅳ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공동체 조성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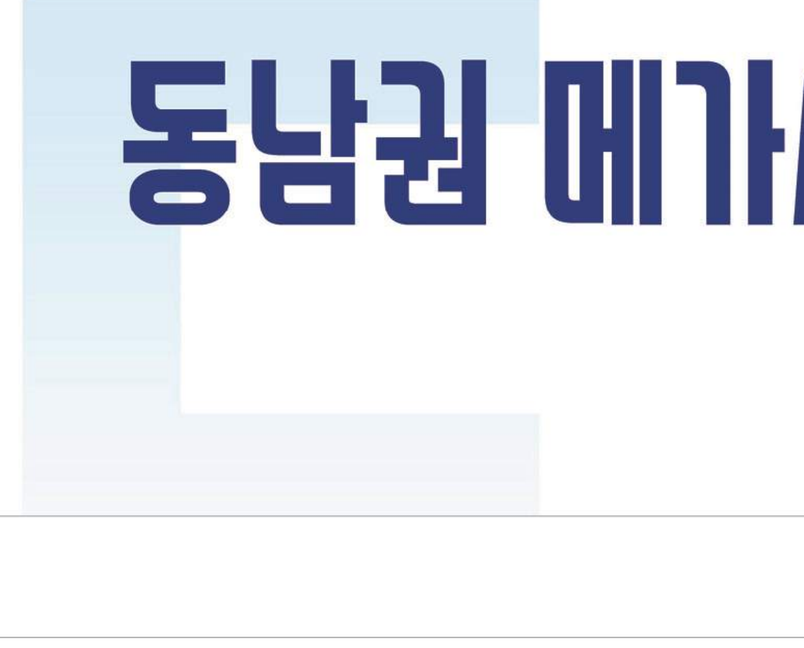
I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의 당위성

01 지방은 죽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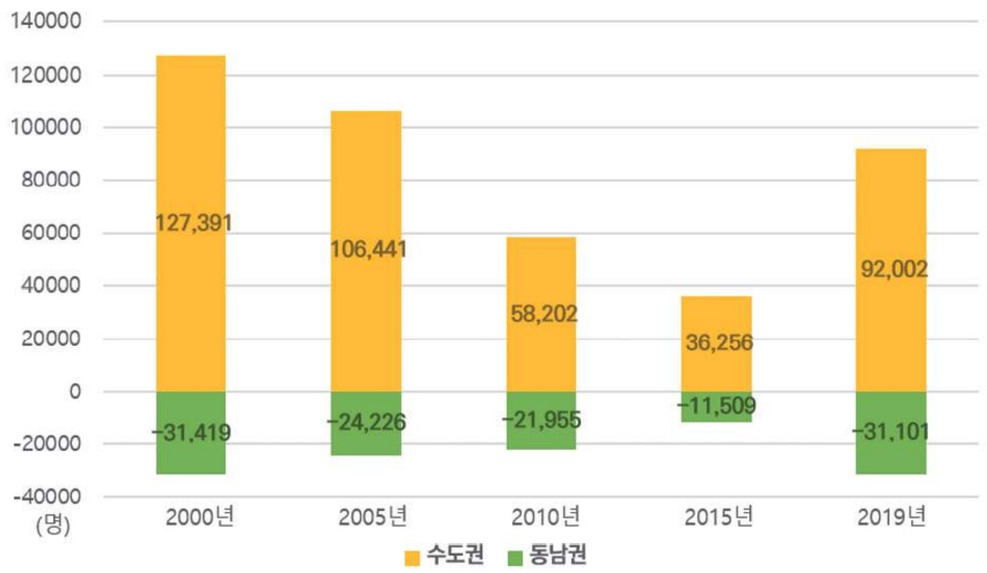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 수도권 인구 비중 50.1% 돌파

비수도권 청년층 인구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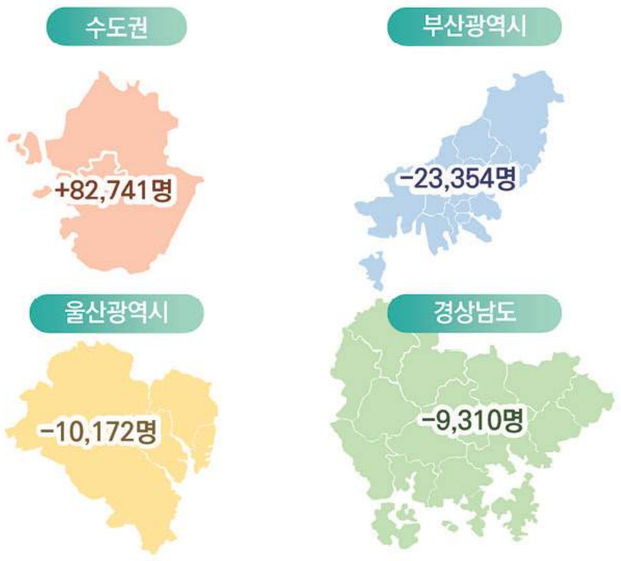
• 청년층인구 수도권으로 159만명 순유입 (동남권 41만명 포함)
(2000년~2019년 기준)

출처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국내인구이동통계)

01 지방은 죽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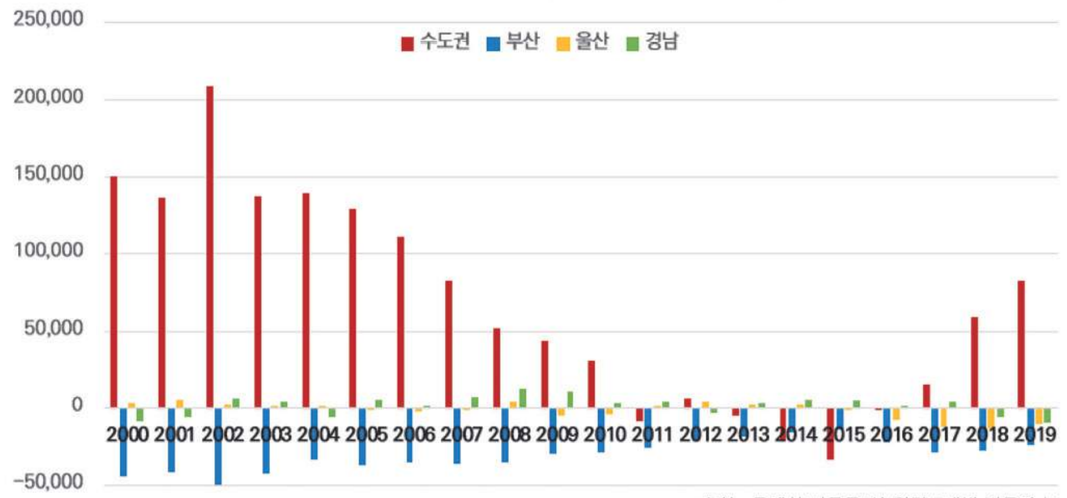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수도권 및 동남권 인구이동(2019년)



20년간 수도권 및 동남권 인구이동 가속화

● 부산, 울산, 경남 인구 유출 심각 및 수도권 인구 유입 증가



출처 : 통계청(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순이동자수
수도권	150,252	209,591	140,336	111,700	52,022	31,026	6,900	-21,111	-863	59,797	82,741	1,321,366
부산광역시	-43,694	-49,442	-33,229	-34,686	-34,604	-28,466	-20,610	-15,092	-21,392	-26,759	-23,354	-602,145
울산광역시	3,216	2,625	1,764	-2,411	3,906	-3,525	4,006	2,786	-7,622	-12,654	-10,172	-24,454
경상남도	-8,512	6,896	-5,611	1,294	13,029	3,246	-2,772	6,075	1,772	-5,810	-9,310	41,632

01 지방은 죽어간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일시적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 충청권, 강원권 인구 증가 : 행정수도 이전 및 수도권의 외연 확장
· 제주권 인구 증가 : 우수한 자연환경으로 수도권 인구 흡수

※ 출처 : 통계청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순이동자수
수도권	31,026	-8,450	6,900	-4,384	-21,111	-32,950	-863	16,006	59,797	82,741	128,712

2011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이동 (명)	
수도권 → 충청권	18,531
수도권 → 전라권	297
수도권 → 동남권	-10,747
수도권 → 대경권	-7,952
수도권 → 강원권	6,298
수도권 → 제주권	2,023
수도권 → 지방전체	8,450

2013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이동 (명)	
수도권 → 충청권	16,236
수도권 → 전라권	-3,079
수도권 → 동남권	-8,800
수도권 → 대경권	-9,266
수도권 → 강원권	3,540
수도권 → 제주권	5,753
수도권 → 지방전체	4,384

2014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이동 (명)	
수도권 → 충청권	25,387
수도권 → 전라권	-678
수도권 → 동남권	-5,852
수도권 → 대경권	-8,654
수도권 → 강원권	3,110
수도권 → 제주권	7,798
수도권 → 지방전체	21,111

2015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이동 (명)	
수도권 → 충청권	29,548
수도권 → 전라권	-464
수도권 → 동남권	-5,624
수도권 → 대경권	-6,519
수도권 → 강원권	6,198
수도권 → 제주권	9,811
수도권 → 지방전체	32,950

2016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이동 (명)	
수도권 → 충청권	22,107
수도권 → 전라권	-8,479
수도권 → 동남권	-15,815
수도권 → 대경권	-9,376
수도권 → 강원권	3,217
수도권 → 제주권	9,209
수도권 → 지방전체	863

※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이동,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

2011년~2013년

-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입주 (2011.12.26)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2012.07.01)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세종시 1,2 단계 이전 (2012~2013)
  - 1단계 : 국무총리실 등 12개 기관
  - 2단계 : 보건복지부 등 18개 기관

2014년~2015년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세종시 3단계 이전 (2014)
  - 3단계 : 법제처 등 6개 기관
- 국책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 한국개발연구원(2013.12), 법제연구원(2014.01) 등 15개 기관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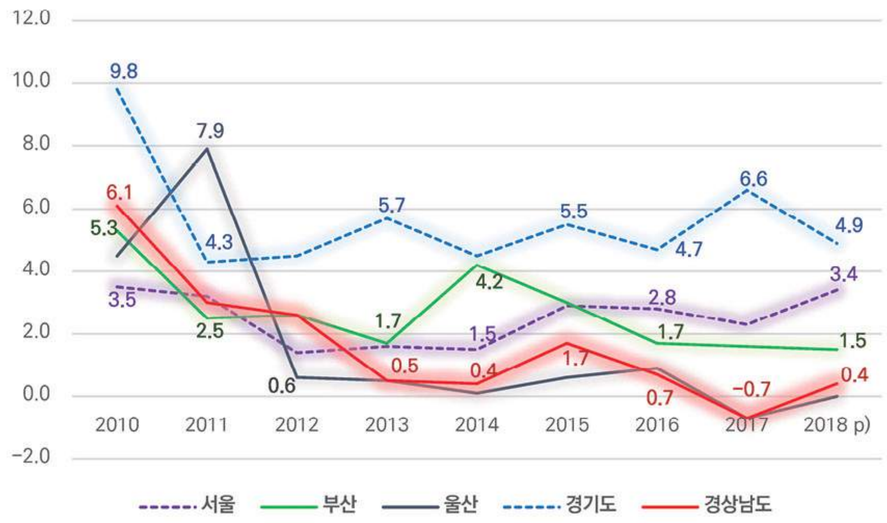
-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4단계 이전
  -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
- 국책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 국토연구원

01 지방은 죽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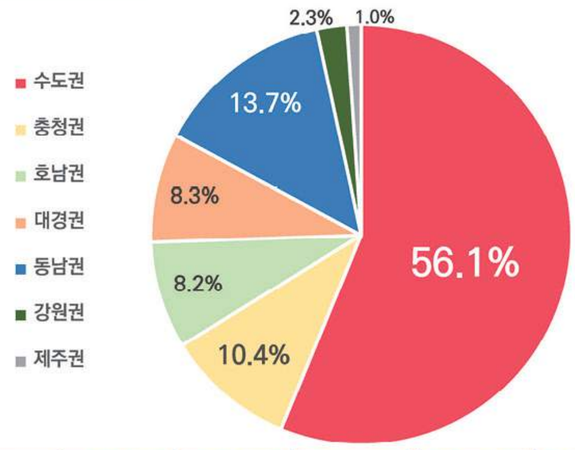
지역내총생산 · 총소득 양극화 심화

- 동남권 GRDP는 현재 275조원(14.5%), 성장률 지속적 감소세
- 지역총소득(GRNI)의 동남권 비중 13.7%, 2010년 대비 전체비중 1.3% 하락

GRDP 변화 추이



GRNI 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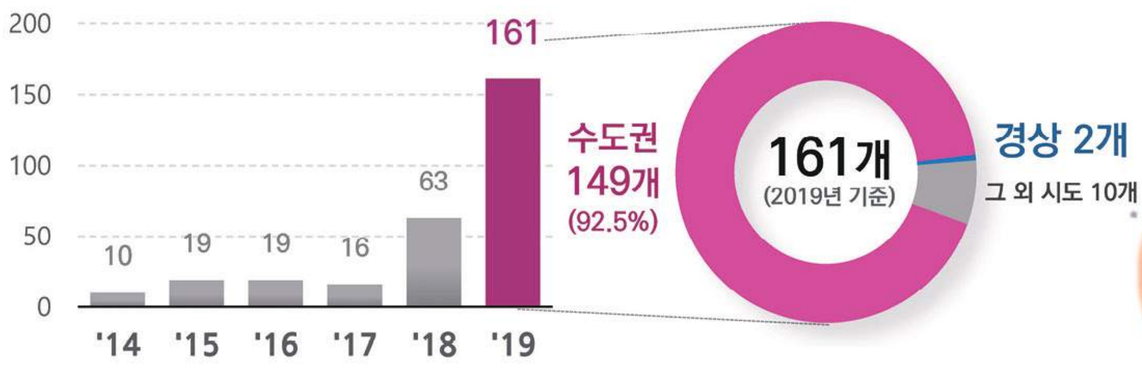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금액(조원)	695	754	809	892	1,028	1,071
	비중(%)	54.9	54.2	54.3	54.2	55.6	56.1
동남권	금액(조원)	193	216	223	245	259	261
	비중(%)	15.3	15.5	15.0	14.9	14.0	13.7

출처 : 통계청(e-지방지표), 지역통계(산업연구원)

01 지방은 죽어간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활동

100억 이상 투자 받은 스타트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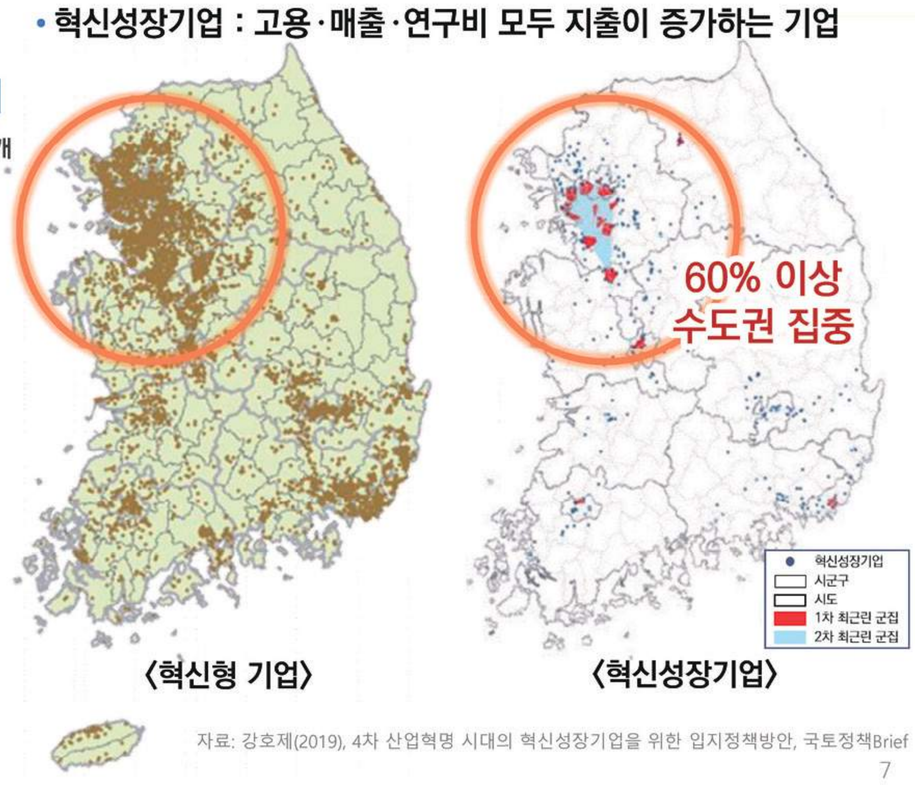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지역통계(산업연구원, 2019)

기타 경제활동 비교

수도권	지역경제 및 산업 위상	동남권
70.2	예금	10.1
68.8	연구개발투자비	5.8
61.1	특허 등록	9.6
56.9	지방세 수입	13.6
50.2	취업자 수	14.7

혁신형 기업과 혁신성장기업 수도권 집중

- 혁신형 기업 : 매년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기업
- 혁신성장기업 : 고용·매출·연구비 모두 지출이 증가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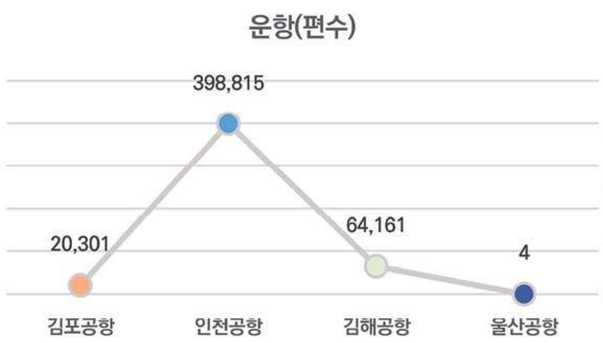
〈혁신형 기업〉 〈혁신성장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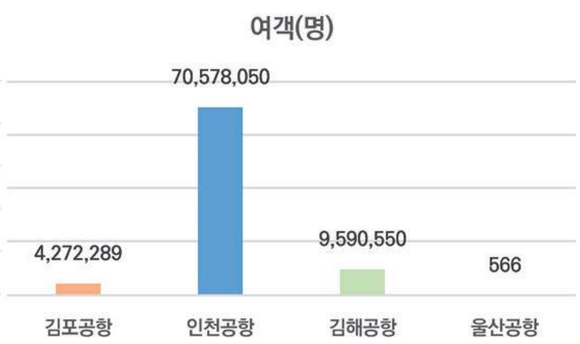
자료: 강호제(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 국토정책Brief

01 지방은 죽어간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제노선

- 수도권 대비 동남권 취항도시 1/2.5 수준
- 수도권 대비 동남권 국제여객 1/7, 국제화물 1/33 수준





구분			운항(편수)			여객(명)			화물(ton)		
공항	취항국가	취항도시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수도권			209,558	209,558	419,116	37,421,905	37,428,434	74,850,339	1,901,426	1,937,373	3,838,799
김포공항	12개 국	29개 도시	10,171	10,130	20,301	2,133,626	2,138,663	4,272,289	33,094.2	51,074.1	84,168.4
인천공항	44개 국	103개 도시	199,387	199,428	398,815	35,288,279	35,289,771	70,578,050	1,868,332	1,886,299	3,754,631
동남권			32,045	32,120	64,165	4,813,321	4,777,795	9,591,116	56,988	59,519	116,507
김해공항	16개 국	53개 도시	32,043	32,118	64,161	4,813,037	4,777,513	9,590,550	56,985.1	59,516.3	116,501.4
울산공항	1개 국	1개 도시	2	2	4	284	282	566	2.8	2.8	5.5

출처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통계 (2019)

01 지방은 죽어간다

하락하는 지방대학 위상

국내 20위권내 대학 중 동남권 1개

지역	대학명	2019년	2015년	2005년
서울	서울대	1위	1위	3위
서울	성균관대	2위	2위	6위
서울	한양대	3위	3위	7위
서울	연세대	4위	4위	4위
서울	고려대	5위	5위	5위
서울	경희대	6위	11위	10위
서울	중앙대	7위	8위	12위
서울	서강대	8위	6위	8위
서울	이화여대	8위	7위	9위
안산	한양대(ERICA)	10위	9위	-
수원	아주대	11위	16위	15위
서울	서울시립대	12위	10위	23위
서울	한국외국어대	13위	14위	14위
서울	건국대	14위	21위	18위
서울	인하내	15위	13위	13위
서울	국민대	16위	28위	40위 밖
서울	동국대	17위	19위	40위 밖
부산	부산대	18위	12위	16위
서울	숙명여대	19위	33위	24위
전주	전북대	20위	17위	39위
진주	경상대	30위 밖	31위	32위
울산	울산대	30위 밖	26위	20위

출처 : 중앙일보 대학평가(2019) *만점 : 300점

세계 대학 순위에서 동남권 대학 중 500위권 내 UNIST 유일

2021 US뉴스 세계대학순위 (미국)

구분	순위	대학명	점수	추이	2020년
1	129위	서울대	67.5	▼	128위
2	205위	성균관대	62.3	▼	195위
3	264위	고려대	59.5	▲	271위
4	274위	KAIST	59.5	▼	252위
5	329위	연세대	56.7	-	329위
6	367위	POSTECH	55.1	▼	335위
7	395위	UNIST	54.1	▼	358위
8	440위	한양대	52.7	▼	434위
9	553위	경희대	48.9	-	553위
10	618위	경북대	47	▼	557위
	668위	울산대	45.4	▼	616위
	689위	부산대	44.8	▼	641위
	1049위	경상대	34.6	▼	904위

2021 THE 세계대학순위 (영국)

구분	순위	대학명	점수	추이	2020년
1	60위	서울대	69.7	▲	64위
2	96위	KAIST	62.4	▲	=110위
3	=101위	성균관대	61.7	▼	89위
4	151위	POSTECH	57.5	▼	=146위
5	=167위	고려대	56.3	▲	=179위
6	=173위	UNIST	55.8	▲	201-250위
7	=187위	연세대	54.9	▲	197위
8	251-300위	경희대	48.0-50.5	▲	301-350위
9	301-350위	세종대	45.6-47.9	▲	401-500위
10	351-400위	한양대	43.6-45.5	-	351-400위
	601-800위	울산대	30.2-36.3	-	601-800위
	801-1000위	부산대	25.1-30.1	▼	601-800위
	1001+ 위	경상대	10.3-25.0		

2021 QS 세계대학순위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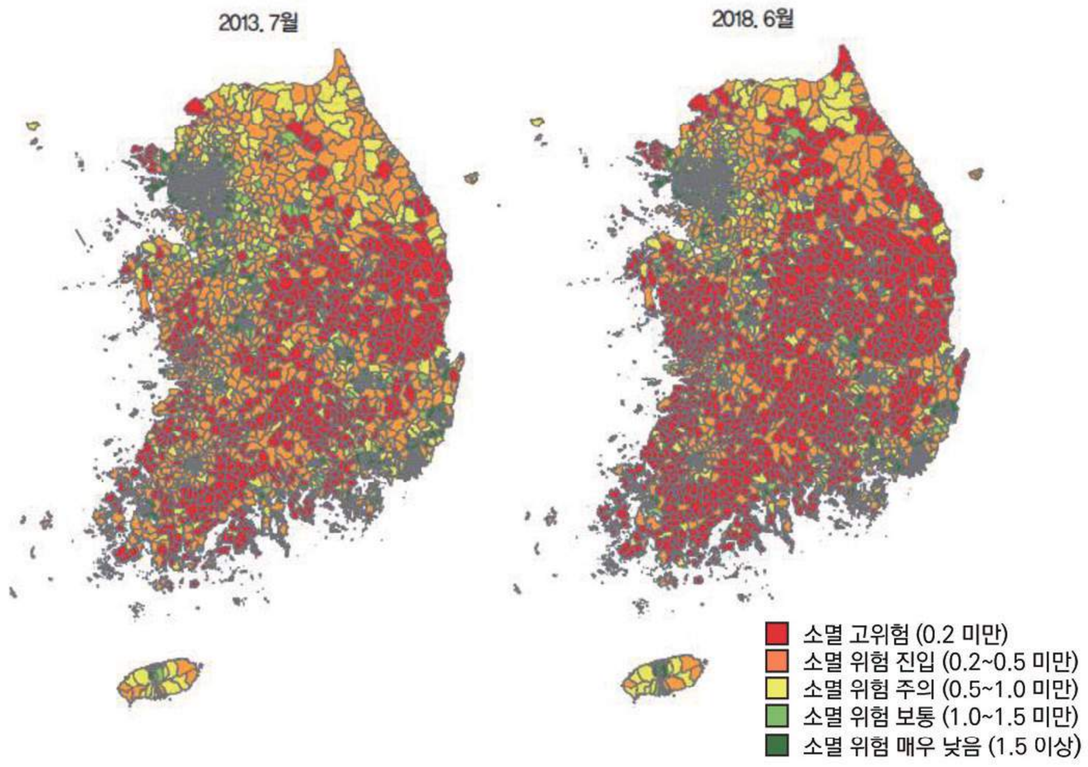
구분	순위	대학명	점수	추이	2020년
1	37위	서울대	79	-	37위
2	39위	KAIST		▲	41위
3	=69위	고려대		▲	83위
4	=77위	연세대		▲	=104위
5	85위	성균관대		▲	95위
6	146위	한양대		▲	150위
7	=236위	경희대		▲	=247위
8	440위	한양대(erica)		▼	434위
9	553위	경희대		-	553위
10	618위	GIST		▼	=322위
	521-530	울산대		▼	511-520위
	581-590	부산대		▼	521-530위
	1000위 밖	경상대			

출처 :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QS대학평가기관, THE고등교육기관(2020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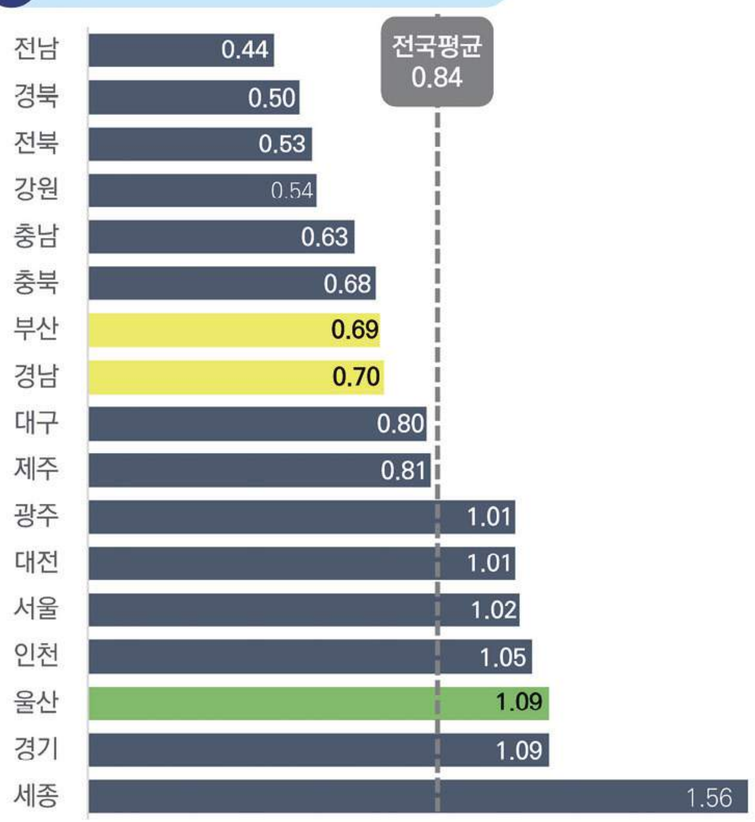
01 지방은 죽어간다

소멸위기지역 증가

전국 시군구 소멸위험지수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



출처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고용동향 브리프, 한국고용정보원

02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

낮은 출산율

지역별 합계출산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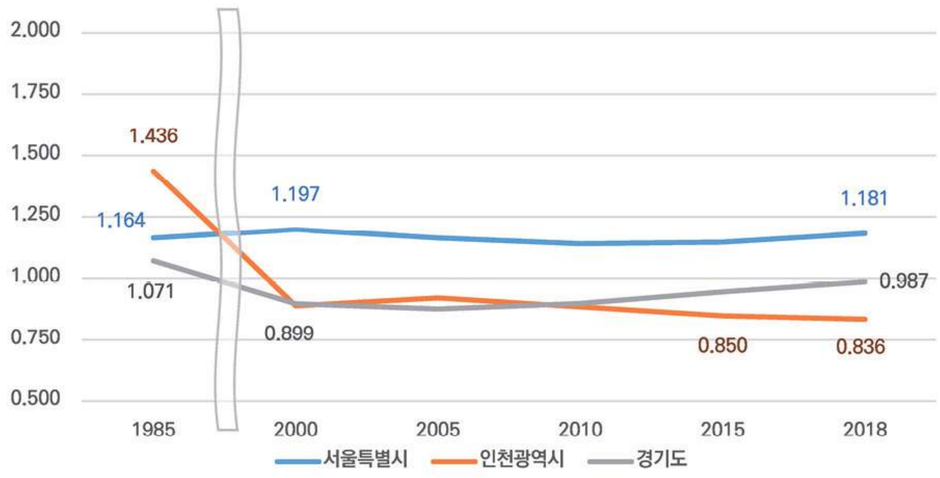
- 전국 평균 출산율(0.92), 수도권 출산율(0.87), 동남권 출산율(0.98)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9년 기준)

02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

수도권 집중 대비 부정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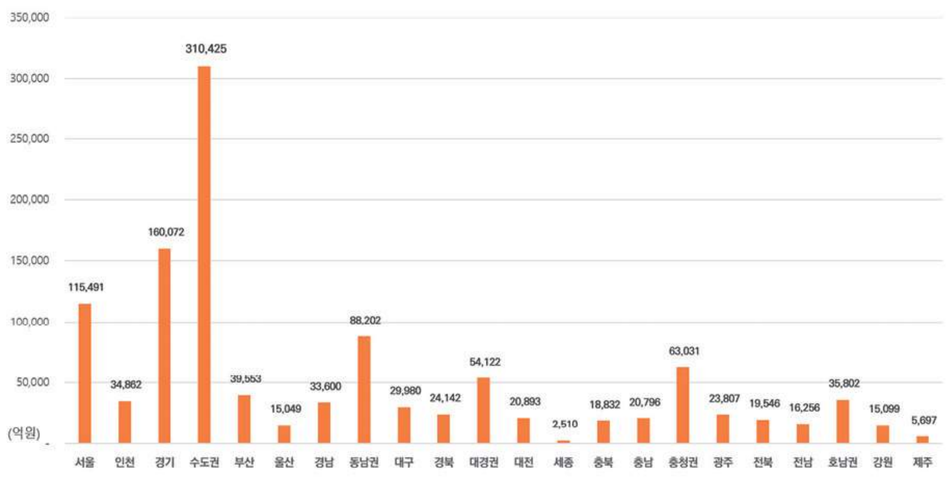
수도권의 국가경제 기여도 하락



- 수도권 국가경제 기여도 : 1.159 (‘85) → 1.043 (‘18)

※ GRDP 집중도 / 인구 집중도

생활권 확대로 인한 장거리 통행량 증가 및 교통혼잡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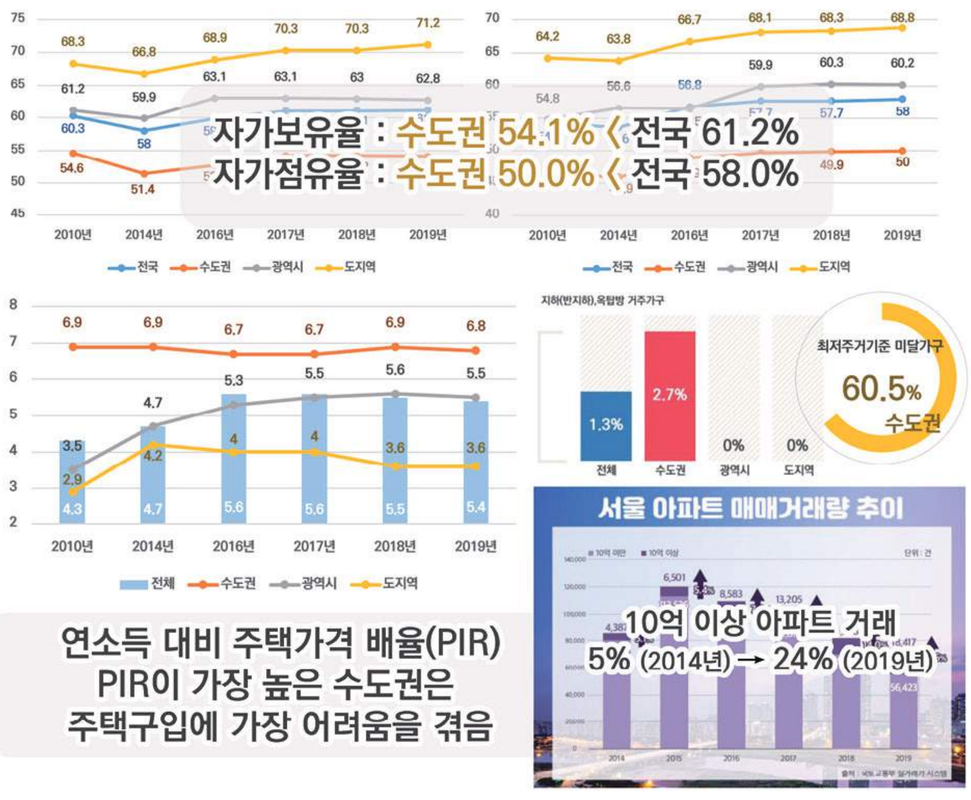
- 수도권 도로혼잡비용 31조 (전국 대비 52.1%)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2017)

02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

부동산 가격 격차, 수요공급미스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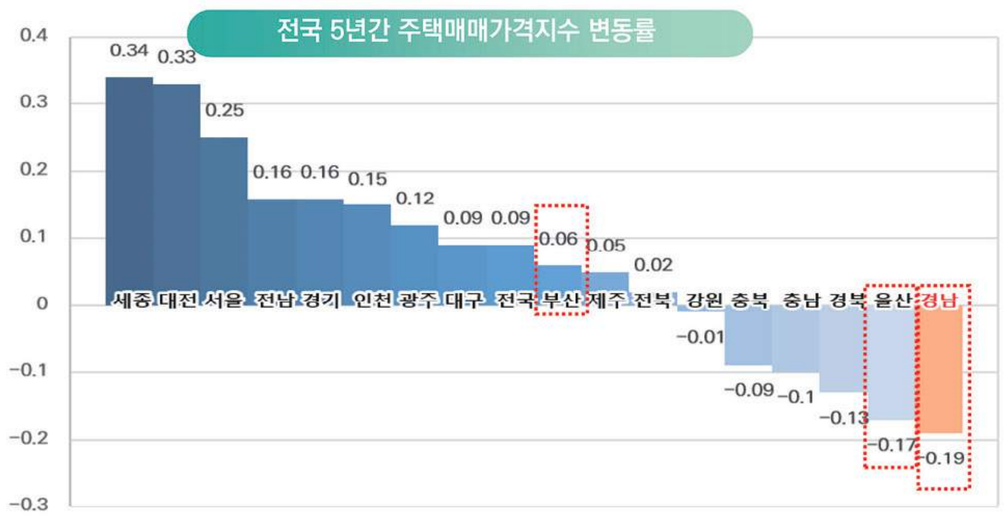
수도권의 취약한 주거환경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PIR이 가장 높은 수도권은
주택구입에 가장 어려움을 겪음

동남권 주택 가치 하락

2016~2020년에 9개 전국 시도 중
경남, 울산 주택 매매가격 가장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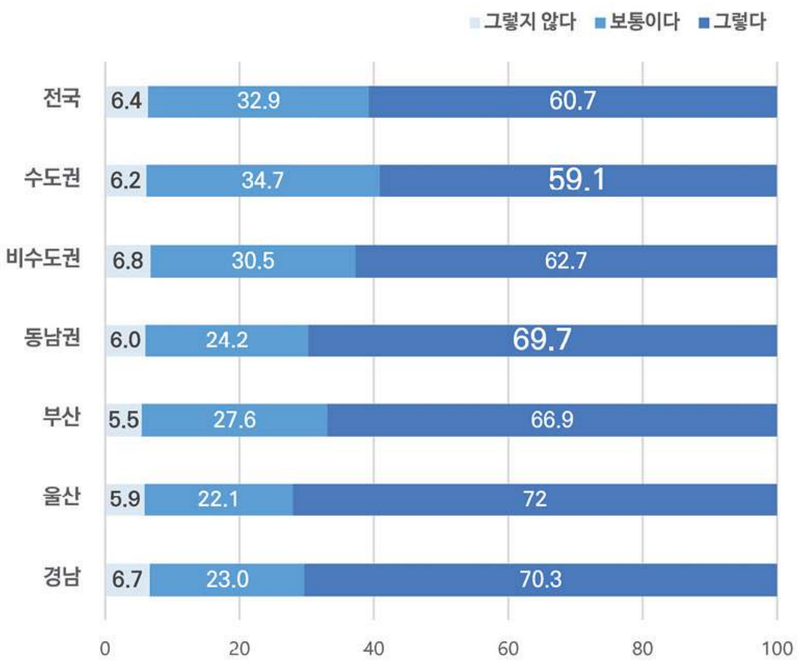
※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월별 변동률의 평균으로 산정
출처 : 부동산통계, 더미래연구소

02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

수도권의 낮은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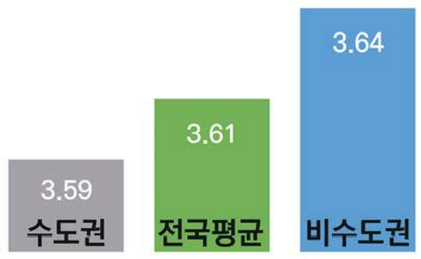
-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 전국평균 이하인 수도권 삶의 만족도

시도별 삶의 만족도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만족도 비교

수도권	지표	비수도권
3.59	삶의 전반적 만족도	3.64
2.90	대기질(미세먼지 등)	3.20
3.37	공원/녹지	3.55
3.46	자연환경보전	3.62
3.56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인	3.73
3.21	주민 참여	3.45
3.00	일자리 기회	2.84
3.95	기초 생활여건	3.82
3.67	대중교통 이용	3.60
3.47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3.34
3.78	병/의원, 약국 이용	3.69
3.61	의료서비스 수준	3.53
3.74	향후 5년 후 지속 거주의향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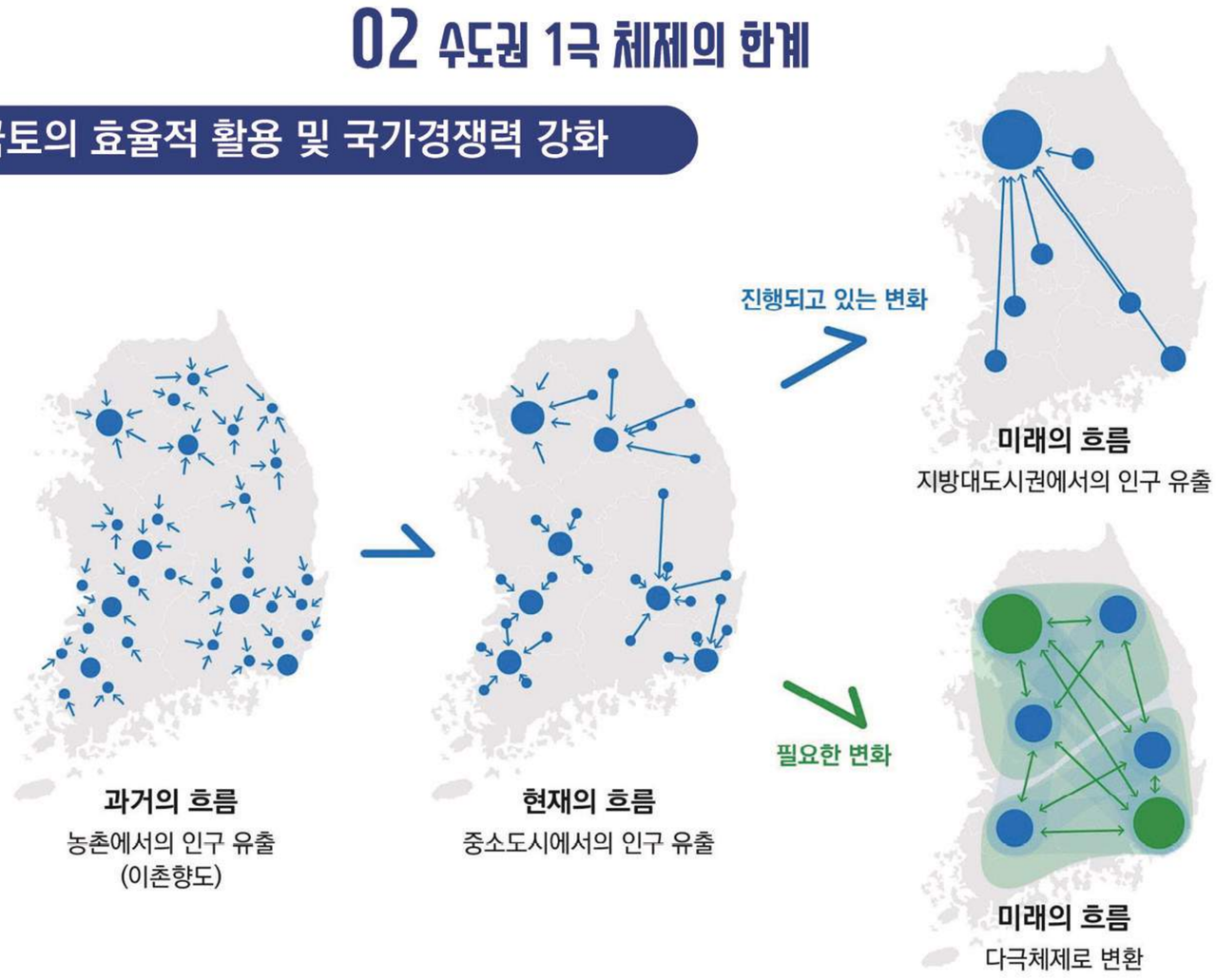


17개 시도 중 만족도 상위 3위 지역
- 경남(3.78점)
- 울산(3.75점), 광주(3.75점)
- 부산(3.71점)

출처 : 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지표,2020

02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

다극체제 전환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경쟁력 강화



출처 : 마강래(2020),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신다'를 바탕으로 재구성

03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

2000년대 이전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 **1960~70년대 : 산업화 촉진**
  - 국가의 가용자원을 산업 성장과 수출 촉진 등 경제성장에 집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등 제도 마련)
- **1980~90년대 : 산업화 부작용 및 수도권 집중 회복 시도**
  -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 해소에 치중하지만 성과는 미미 (광역화된 성장거점 육성전략 추진)
- **2000년대 초반 : 국가 경쟁력 강화**
  - 지역특성에 맞춘 지역주도의 다원화된 발전전략 제시 (개별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개방경제체계에 대응)

2000년대 이후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 수도권 1극 체제 완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참여정부 (2003~2008)	이명박정부 (2008~2013)	박근혜정부 (2013~2017)	문재인정부 (2017~)
• **지역 다원주의 시작**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	• **5+2 광역경제권 설정** (5대 광역경제권, 2대 특별경제권 설정)	• **지역행복생활권 설정** (지역중심 활력 증진)	• **(분권)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지역이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
•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등)	• **국가균형발전 체계 전환** (균형발전 → 지역발전 전환)	• **국민 행복과 삶의 질 중시** (생활여건 개선 등에 치중)	• **(포용) 국가균형발전체계의 복원** (균형위 위상 강화, 지역혁신체계 재구축)
• **수도권 규제의 점진적 완화** (첨단업종 공장신설 허용 등)	• **행복도시 건설 수정 시도** (수정법안 제출 → 국회 부결)	• **광역권 등 국토 전반의 구상 미흡** (기초생활권 단위 사업 다수 시행)	• **(혁신) 지역 주도의 자립 성장기반**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추진)

03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의 한계

01 광역권 단위에서 합의 공유된 비전 및 전략 부재

-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비전과 목표
- 광역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동기부여와 인센티브가 적었음
- 지역의 책임성이 부족하고 지역간 나눠먹기식 사업 추진

02 행정구역 불일치 극복을 위한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실패

- 중앙부처별 칸막이 예산 지원과 소지역주의 발흥으로 효과 반감
- 거버넌스 핵심인 지역발전위원회와 광역발전위원회의 위상 취약
- 중앙과 지방 모두가 권한과 예산을 광역경제권 기구로 주지 않음

유연한 광역권 형성

지역주도 구획(지역간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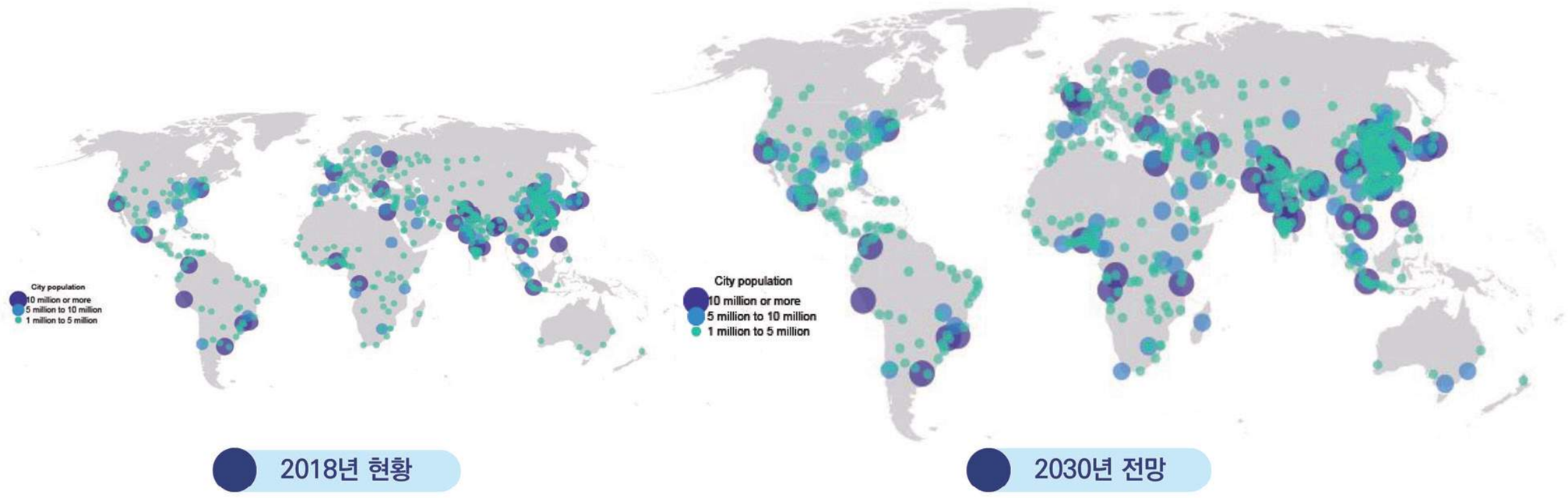
산업적, 기능적 연계 기반 구획
유연/개방적 권역

Ⅱ

국제 메가시티 추진 현황

전세계적으로 메가시티 증가

- 1천만명 이상의 도시가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증가할 전망
- 5백만에서 1천만명의 도시도 2018년 48개에서 2030년 66개로 증가할 전망



2018년 현황　　2030년 전망

출처 : UN, The World Cities in 2018, p.2

주요국가별 메가시티 육성정책

01 미국의 America 2050(2006)

- 11개 메가리전 출현을 통해 도시 네트워크 연결

02 프랑스의 국토 204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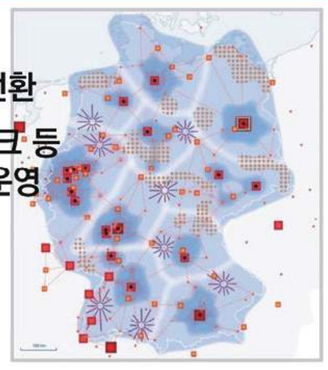
- 22개 메트로폴 설치
- 주거 및 관광공간, 자리(산업)공간, 통행(교류) 등 7개 공간시스템별 지방 대도시화

03 영국의 City-Regions 정책(2006)

- 맨체스터, 리즈, 리버풀 등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8개 도시권을 형성
- 경제활성화, 삶의 질 향상, 인프라 확충 등 도시권 개발 계획 공동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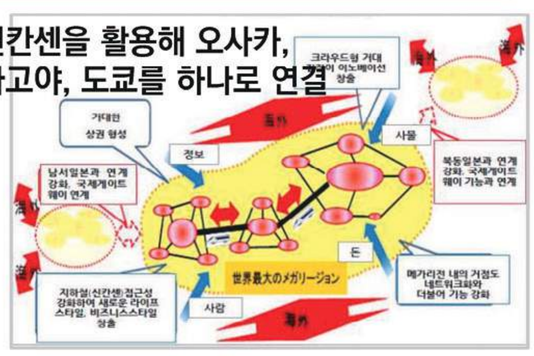
04 독일의 대도시권(2005)

- ‘모자이크’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전환
- 라인-루르, 함부르크 등 11개 대도시권을 운영



05 일본의 국토그랜드비전 2050(2015)

- 신칸센을 활용해 오사카, 나고야, 도쿄를 하나로 연결



06 중국의 도시군 구상(2009)

- 대도시 중심 도시군 육성 추진
- 주강 삼각주, 장강 삼각주, 징진지 등을 포함하여 10개~12개 도시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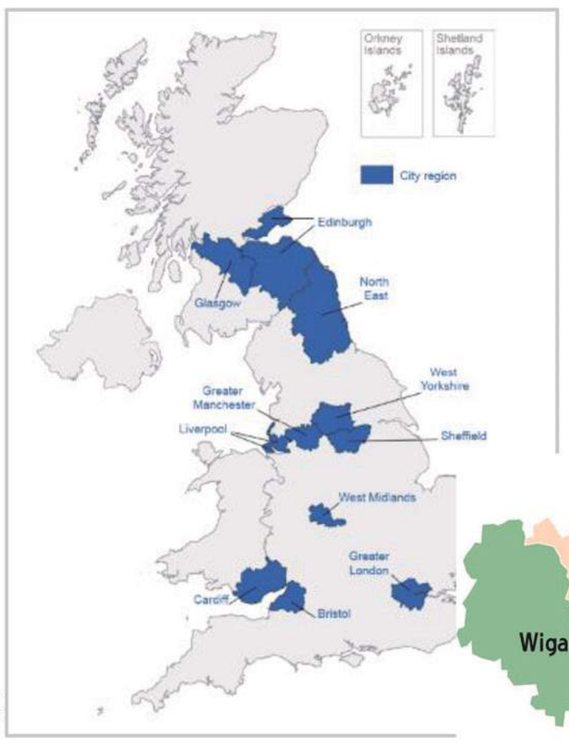
영국 그레이트 맨체스터 대도시권(GMCA)

01 추진배경

- **광역화를 통한 국가발전 동력 활용**
  - 1970년대 이후 섬유 및 중화학 산업 쇠퇴로 인한 산업구조조정 심화
  - 지역개발 및 인프라 자금조달 장애발생
  - 1980년대 인근 10개 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의 문제를 대처
- **이중 행정시스템 체제 탈피**
  - 1972년 지방정부법으로 출범하였으나 카운티위원회와 이중 행정시스템
  - 1986년 카운티위원회 폐지 후 단일행정체제 유지

02 추진과정

- **1986년 : 광역맨체스터의회 폐지 이후 광역맨체스터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 GMC 폐지 이후 10개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모여 교통문제 등을 논의
- **2011년 : GMCA 설립**
  - 자발적으로 논의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법적 기반을 갖춤
- **2014년 : GMCA 수립 및 GM 전략 발표**
  - 교통, 주택, 도시재생 분야를 중심으로 광역계획을 수립 및 추진



면적 : 약 1만 277km²

인구 : 280만명(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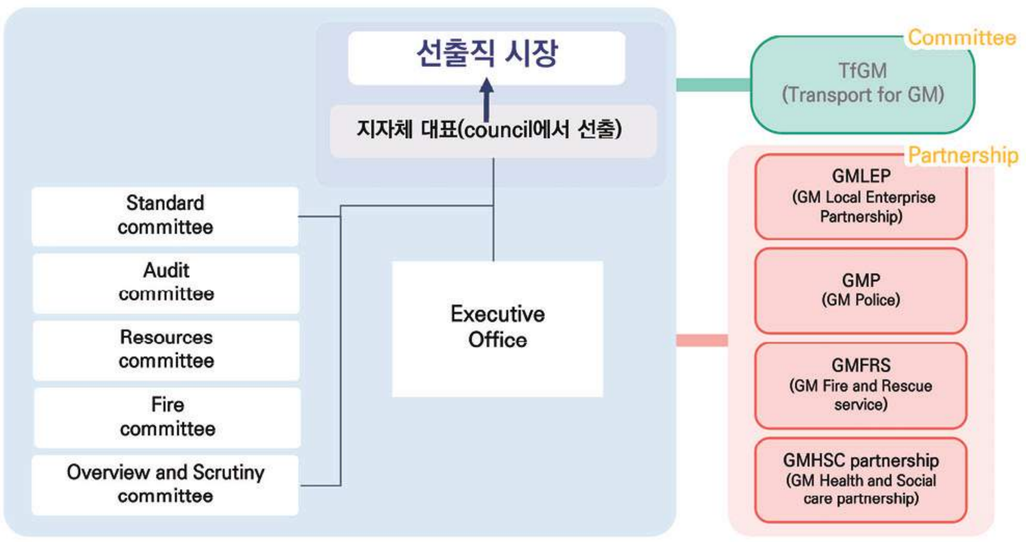
영국 그레이트 맨체스터 대도시권(GMCA)

04 거버넌스 체계

- **구성지자체 : 맨체스터시와 주변 9개의 지방자치단체(10개)**
- **근거 :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 **역할 : 경제개발, 재생, 교통, 그리고 관련 지자체가 이전하기로 동의한 사안에 대한 정책수립, 공공 및 민간 파트너쉽 체결**
- **재원 : 국가권한 이양 협약*(보조금+일부 조세권 부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지출** (방법은 규약으로 규정함)

※ 권한이양 협약*
- 기존의 영국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보다 더 확대된(이전에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행정권한 및 재원을 이양받음(치안유지와 소방, 형사사법제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등)
- 중앙정부와 국가사무계획 협약 체결에 따라 광역연합에 보조금(30년간 약 4억5천~10억 파운드), 교통 등 특정분야 추가 보조금, 일부 조세권 부여

- **거버넌스 구성 : 선출직 시장, 부시장, 지자체 대표(각 지자체 의회의 리더)**
- **특징**
  - 국가에서는 지침만 제시, 광역도시권 단위의 협력을 통해 계획 수립
  -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상공회의소 등)의 위원회와 함께 추진
  - 국제경쟁력 강화, 초고령화사회 대응 등 전략에 맞는 프로젝트 수행



출처 : GMCA홈페이지
장수진(2019), 광역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 기관개요 및 추진사업
이주일(2019), 대도시권 계획이 필요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향

영국 그레이트 맨체스터 대도시권(GM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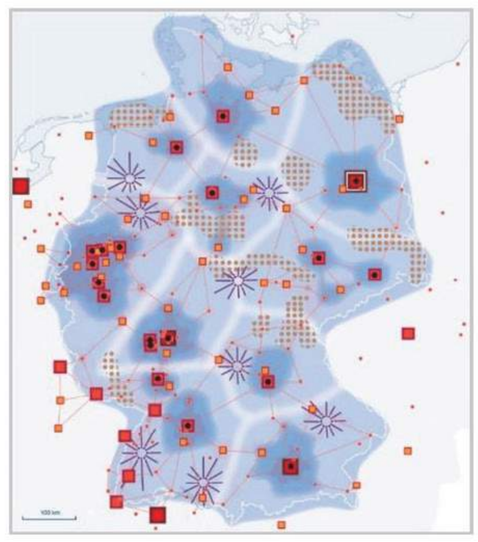
04 주요 추진 전략

- **비전 :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기 좋은 곳 만들기'**
- **비전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별 사업방향 및 전략**

우선순위	방향 및 전략	우선순위	방향 및 전략
우선순위 1 : 학습 준비가 된 어린이	• 미취학아동 지원(돌봄, 발달) 서비스 구축 •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공간 및 좋은 공기질 확보	**우선순위 6 :** 안전하고 질 좋은 적당한 가격의 주택	• 신규주택 제공 및 빈집 수리를 통한 공공임대사업 개선과 주택가격 안정화 • 주거, 교통, 상업개발, 공공서비스를 결합하여 자연환경의 질 향상도 고려한 주거환경 정책 수립 • 지역 내 노숙자 근절 및 감소
우선순위 2 : 미래를 위해 준비된 청년	• 지역 내 모든 학교의 학력 격차 최소화 • 양질의 교육, 고용과 훈련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우선순위 7 :** 녹색 도시 지역 및 모두를 위한 고품격 문화 및 레저 제공	• 탄소배출 및 대기오염 감소 목표 •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13만톤(2014년) → 11만톤) • 에너지 고효율화 및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증대 • 우수한 자연 환경 활용한 문화, 예술 및 여가 행사 확대
우선순위 3 : 좋은 일자리,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	• 다양한 업무기술 및 학업능력 제공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성취도 향상 • 양질의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광역맨체스터 산업 전략 제시	**우선순위 8 :** 더 안전하고 강력한 커뮤니티	• 범죄피해자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안전 유지 및 개선 •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 피해 복원력 강화
우선순위 4 : 광역맨체스터 전역에서 번영하고 생산적인 경제	• 높은 투자 장벽을 없애고 용이한 신규 기업설립 • 기존 선도적 사업부문 성장과 세계적인 과학·혁신자산 기반의 투자	**우선순위 9 :** 건강한 삶,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 제공	• 주민의 건강향상 지원을 통한 사망률 감소 • 정신 및 신체건강 서비스 개선 및 웰빙문화 촉진 • 학습장애 및 치매, 비만 흡연,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 돌봄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 5 : 광역맨체스터를 움직이는 세계적 수준의 연결성	• 교통혼잡 감소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통합교통시스템 개발 • 자전거 및 보행 친화적 교통계획 수립 • 유럽 5대 디지털지역 실현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계획 및 전략 수립	**우선 순위 10 :** 노령 친화적인 도시지역	• 노령인구 낙상사고 감소 및 방지(2020년까지 7% 감소) • 노령인구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사회복지 강화 • 50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일자리 및 문화여가 기회 제공

출처 : GMCA홈페이지(https://www.greatermanchester-ca.gov.uk/)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01 추진배경

- **초광역차원의 공간이용계획 수립의 필요성**
  -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이 단독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다양한 과제 발생
  -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마련 필요성
- **국가 경쟁력 우위**
  - 유럽 및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광역권 형성 필요성

02 추진과정

- **1973년 : 넥카중류 광역조합 설립(공동도시계획수립 목적)**
  - 단일의회라기 보다 참여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상이한 이해관계 집합체
  - 조합구성원 간 이해관계 대립 및 해결역량 제한
- **1994년 : 슈투트가르트광역연합 설립(넥카중류 광역연합 한계 극복)**
  - 계획수립 및 집행기능 동시 수행

면적 : 약 1만 900km²
인구 : 280만명(2019)
GRDP: 약 1,775억 달러(2019)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03 거버넌스 체계

- **구성 지자체 : 슈투트가르트 중심 179개 기초자치단체와 5개 군으로 형성**
- **근거 : 연방지역계획법(1965년), 1994년부터 주민직선에 의한 지역의회 구성**
- **역할 : 강력한 제도화 기반 민주적 합법적 통치구조, 지역계획의 수립 및 집행, 지역 인프라 확충, 경제진흥 등 광역경제권 집행기구의 역할 수행**
- **재원 : 연간 예산규모 약 4억 4천만유로(약6천억), 국가보조금 12.4%지원 특별교부금(연방정부), 보조금(주정부), 협의회 분담금(기초지자체 등), 수수료(대중교통 운영수입), 기부금 등으로 충당**
- **거버넌스 구성 : 법인형 다목적 지역협의회 구성 (지역위원회, 지역위원, 자문위원 등)**

구분		금액(백만 유로)	비중(%)	지역연합법 근거
계		442.4	100.00	-
수수료		140.8	31.83	제20조
보조금		54.8	12.38	제21조
분담금		87.1	19.69	제22조
	일반재원 분담금	23.4	5.29	제22조 제1항
	대중교통 분담금	61.6	13.92	제22조 제2,3항
	폐기물처리 분담금	2.1	0.48	제22조 제4항
기타		159.7	36.10	-
	지역화 재원	94.2	21.29	-
	신용차입 재원	65.5	14.81	-

〈 2020년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재정수입 금액〉

출처 : 국토해양부(2010), 지방 대도시권의 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이주일(2019), 대도시권 계획의 필요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향
이정석(2019) 동남권광역연합 설립 방향 및 과제, 경남발전지 148호
https://www.region-stuttgart.org/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04 주요 추진 사업

- **비전 및 목표**
  - 유럽정책 및 자금정책 형성에 참여, 자금 지원프로젝트 실행, 네트워크 경험 교환을 통한 지식 습득,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첨단기술 산업도시로의 위치 형성
  - EU수준의 개발과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제공, 지자체 및 지역 협력관계 지원

분야	사업내용	분야	사업내용
지역설정	• 분산적 집중 구상에 근거한 ' 밀접관련지역', '외부발전지역', '지방발전중심지' 설정을 통한 베를린주를 둘러싼 브란덴부르크주와의 상생관계 형성 •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시가지의 균형있는 발전 구상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보전, 중심지의 기능강화, 교통통신 인프라 정비)	교통과 통신	• 근거리 공공교통시스템 충실화로 승용차이용 감소 추진 • 도로망 확장과 중심지로의 접속 • 지역경계를 넘은 자전거도로 활성화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기존 공항을 확장) • 내륙항 확장과 내륙수로 활용을 통한 여객, 화물수송
도시개발과 주택	• 중심지의 도시개발 추진 • 직장-주거-상업의 근접화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 주택부족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광업	• 채광과 자연경관 보전 • 안전성의 확보 • 광물원료의 저장
경제와 노동시장	• 경제발전의 방향과 정책 구상 • 산업의 구조개혁(예: 관광정책)	농림업	• 생태적, 경제적으로 장기 안정된 시스템 구축
에너지	• 여러가지 에너지원의 다양한 제공 •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이용	환경 (쓰레기 및 재활용)	• 쓰레기 처리 • 재이용과 쓰레기가 적은 제품의 창조 • 재이용 불가능한 쓰레기의 보관
방재 및 방위	• 화재 및 재해 구조 등	공해 대책	• 대기, 토양오염, 소음 등 대책방안 강구 •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등
		건강,사회복지	• 외래의료서비스 및 장애인 케어 서비스 구축 • 청소년복지사업 / 망명신청자 및 이주자 수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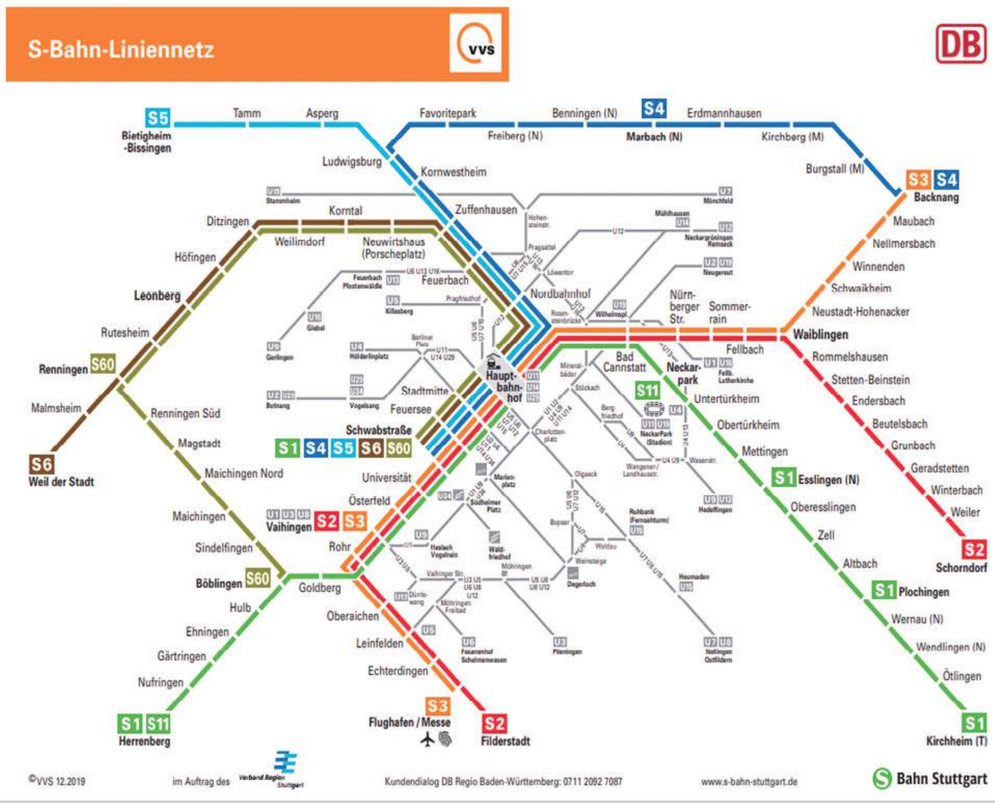
출처 : 이주일,김인희(2009),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이주일(2019), 대도시권 계획의 필요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향
https://www.region-stuttgart.org/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05 대표 프로젝트

- **MORO : Living regions**
  - 지역개발을 위한 슈투트가르트 지역 경관공원 연결 활동의 일환으로 건축, 도시 및 공간 연구기관이 신청한 지역계획 모델 프로젝트임
  - 권역내 위치하는 박물관들과 공원을 순환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경관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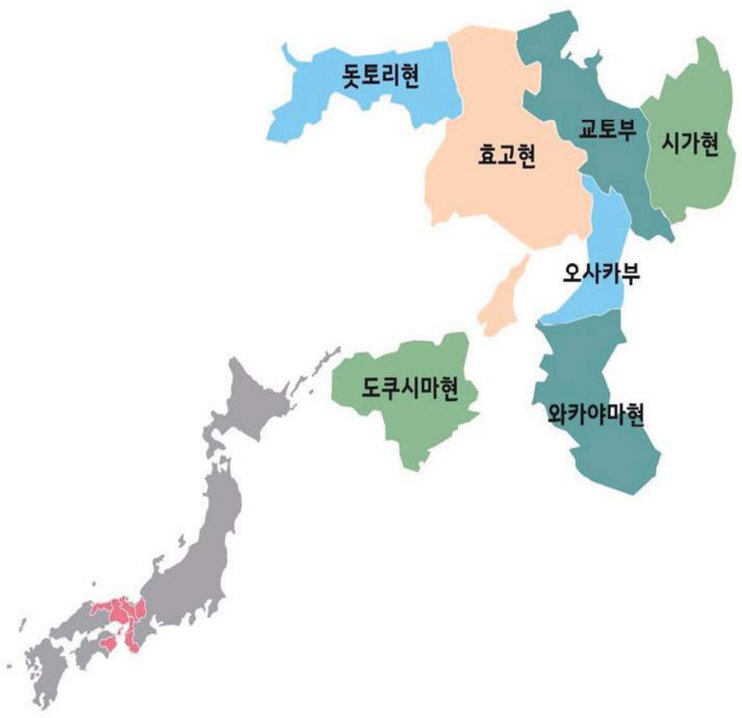
- **S-Bahn 열차**
  - 슈투트가르트 대도시권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도시-통근 철도로 평일 약 43만명의 통근자들을 수용함
  - 슈투트가르트 지역협회는 승객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열차차량 내부개선, 시간대별 운행간격 조정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01 추진배경

- **지방분권형 지역사회 실현**
  - 중앙 집권 체제와 도쿄의 일극 집중 타파
  - 지역의 자치적 결정, 자율적 책임성 확보
- **간사이 지역 전체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주체 구축**
  - 광역과제 수행을 통한 주체적 대응 구조 형성
  -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차원의 교통·물류기반의 일체 운영관리 목표



02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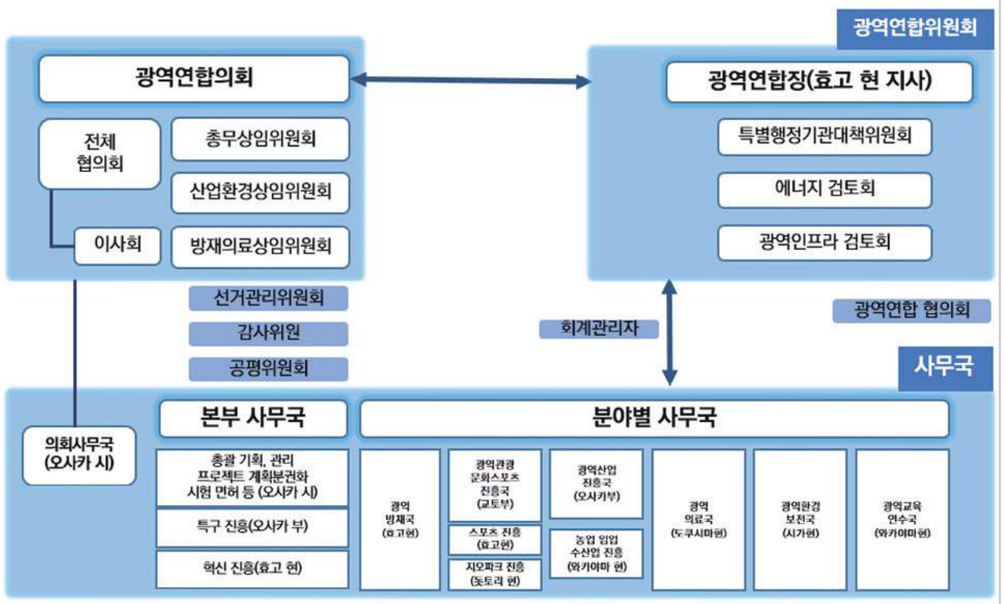
- **2007년 : 간사이광역기구 발족**
  - 간사이광역기구에 설치된 분권개혁추진본부에서 간사이광역연합 검토
- **2010년 : 간사이광역연합 설립**
  - 의회의 관계의안 의결을 거치고 총무장관 설럽허가 신청을 통해 설립
- **2018년 :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유치**
  - 엑스포 유치시 간사이연합의 광역적 대응이 성공요인 중 하나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03 거버넌스 체계

- **구성지자체 : 간사이 광역지자체 (2부 6현), 기초지자체(4시)**
- **근거 :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2-6**
- **역할 : 7개 광역행정 사무 (광역방재, 광역관광·문화·스포츠진흥, 광역산업진흥, 광역의료, 광역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 광역직원연수 등) 수행**
- **재원 : 국고보조금, 구성 단체 분담금, 수수료, 그외(지방채 등)** ※ 과세권 없음
- **거버넌스 구성 : 위원회(소속지자체장), 협의회(지자체별·분야별 단체 및 전문가), 의회(소속지자체에서 선출), 사무국**

출처 : 금성근, 이정석(2019), 부울경 광역권 형성 촉진방안
조성호(2019),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방안
이주일(2019), 대도시권 계획의 필요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향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04 주요 추진 사업

- **목표 및 사업내용**
  - 강하면서도 유연한 산업경제권 형성, 문화학술의 중추권역 형성, 사람들이 모이는 교류정보발신권역의 형성, 역사문화·자연과 조화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형성

분야	사업내용	분야	사업내용
광역방재	• 광역 방재·감재 계획 및 광역대응 및 복구 요강 • 대규모 광역재해를 상정한 광역대응 추진 • 재해시 물자공급의 원활화 추진 • 간사이 광역응원(대응) 훈련 실시 • 방재 분야 인재육성	**광역의료**	• 간사이 광역응급의료 제휴 추진, • 닥터헬기 활용 등을 통한 광역구급의료체제 활용 • 재해시 광역의료체제 강화
광역관광·문화·스포츠진흥	• 관광 문화 진흥계획 전략적 추진 •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월드 마스터스 게임 2021 간사이」등을 위한 관광 활동 추진 • 다양한 광역관광 전개를 통한 관광객 유치 • 전략적 프로모션 전개 • 관민 일체의 광역연계 DMO 대전 추진 등	**광역환경보전**	• 간사이 광역환경보전 추진 •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및 저탄소 사회만들기 추진 • 자연공생형 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 • 순환형 사회 만들기 추진 • 환경인재육성 추진
광역산업진흥	• 간사이 광역산업 비전 추진 • 잠재력 발산 강화 • 간사이 장점을 살린 이노베이션 환경기능 강화 • 고부가 가치화에 의한 중소기업 등의 성장 지원 • 개성 풍부한 지역의 매력을 살린 지역 경제 활성화	**자격시험 및 면허**	• 준 간호사, 조리사, 제과위생사 시험 실시 및 면허 교부 • 독물 연극 물 취급지 등록판매자 시험 실시
		광역직원 연수	• 정책형성 능력 연수 실시 • 구성 자치단체 주최 교육에 상호참여 (단체 맞춤형 연수) • 인터넷을 활용한 연수실시 (교육효율화 추진)

출처 : 조성호(2019),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방안
이주일(2019), 대도시권 계획의 필요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향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05 대표 프로젝트

- **간사이 매력 유람관광 추진**
  - 쿠마노 옛길 및 '산인해안 지오파크를 활용한 '지오 투어리즘' 강화
- **차세대산업을 강조하는 '지혜의 거점' 형성**
  - 세계 최고의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형성(고베의료산업도시 및 사이토·교토 특화)
  - 음식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일본 최초의 '식(食)대학원' 설치
- **문화수도권 형성**
  - 문화·지역진흥 관련분야 대학원 설치(간사이 문화학술연구도시)
  - 국보 등의 보존하는 기술을 계승하기 위해 학습시스템 구축
- **CO2 저감과 자원순환사회 조성**
  -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및 수소·천연가스·바이오연료의 공급시설 등을 광역적으로 조성

III

동남권 메가시티 가능성

동남권 협력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

1) 추진경과

01 부울경 공동협력기구 설치 등 협력 결의 ('18.06)

02 동남권 상생발전 결의문 채택 ('18.10)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등 각종 분야 협력 결의

03 「제1회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19.03)

공동협력과제 6건 협약 (국가균형발전, 교통, 관광, 경제, 안전, 먹거리)

04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부단체장 회의 ('19.06, 07)

신규과제(3건) 채택 : 수소공동체 구성, 공동연구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05 「제2회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19.12)

신규과제(3건) 채택 : 공동 인구정책 수립, 5G 융복합 산업 육성, 창업지원 협력

05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 완료('21.04)

06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 추진단 설립 합의('21.05)

2) 추진실적

01 국가균형발전

- 동남권 협력 프로젝트 발굴, 균형위에 제안(6건)('19.10월)

02 교통

- 동남권 광역교통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및 광역교통현안 대정부건의(수시)

03 관광

-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개소('19.09.16)
- 「동남권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완료('21)

04 재난대응

- 동남권 미세먼지 대책협의회 구성·운영('19.04.04~)
-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준비협의회 구성·운영('19.08.20)

05 경제·산업

- 동남권 조선해양플렌트 기자재 수출상담회 개최('19.06.13)
- 동남권 수소경제권 워킹그룹(15명) 및 실무협의회 구성('19.08.08~)

06 먹거리

- 경남·부산 먹거리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푸드플랜 공동추진
- 경남-부산 학교급식 식자재 시범공급 협의 ('20.01.21/02.06)

역사문화적 동질성

삼국시대 이후 동일한 행정구역

- 신라, 경상도, 경상남도 등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행정구역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 격전지를 함께 지켜낸 호국공동체

- 임진왜란, 한국전쟁의 낙동강 전선 등
  한국사의 주요 격전지를 함께 지켜낸 호국공동체

탈놀이인 오광대, 야류 등으로 문화예술정서 연대감 형성

- 조선시대 덧배기 춤으로 대표되는 탈놀이가 경남은 오광대,
  부산은 야류라고 칭하며 민간에서 정서적 연대감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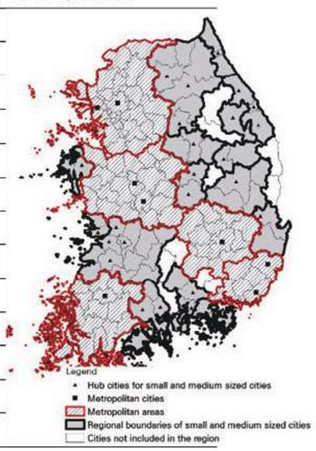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시발점

- 부산과 마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부마항쟁과
  4.19혁명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동의 시발점

- **동남권은 이미 하나의 도시권으로 분석**

〈우리나라 도시권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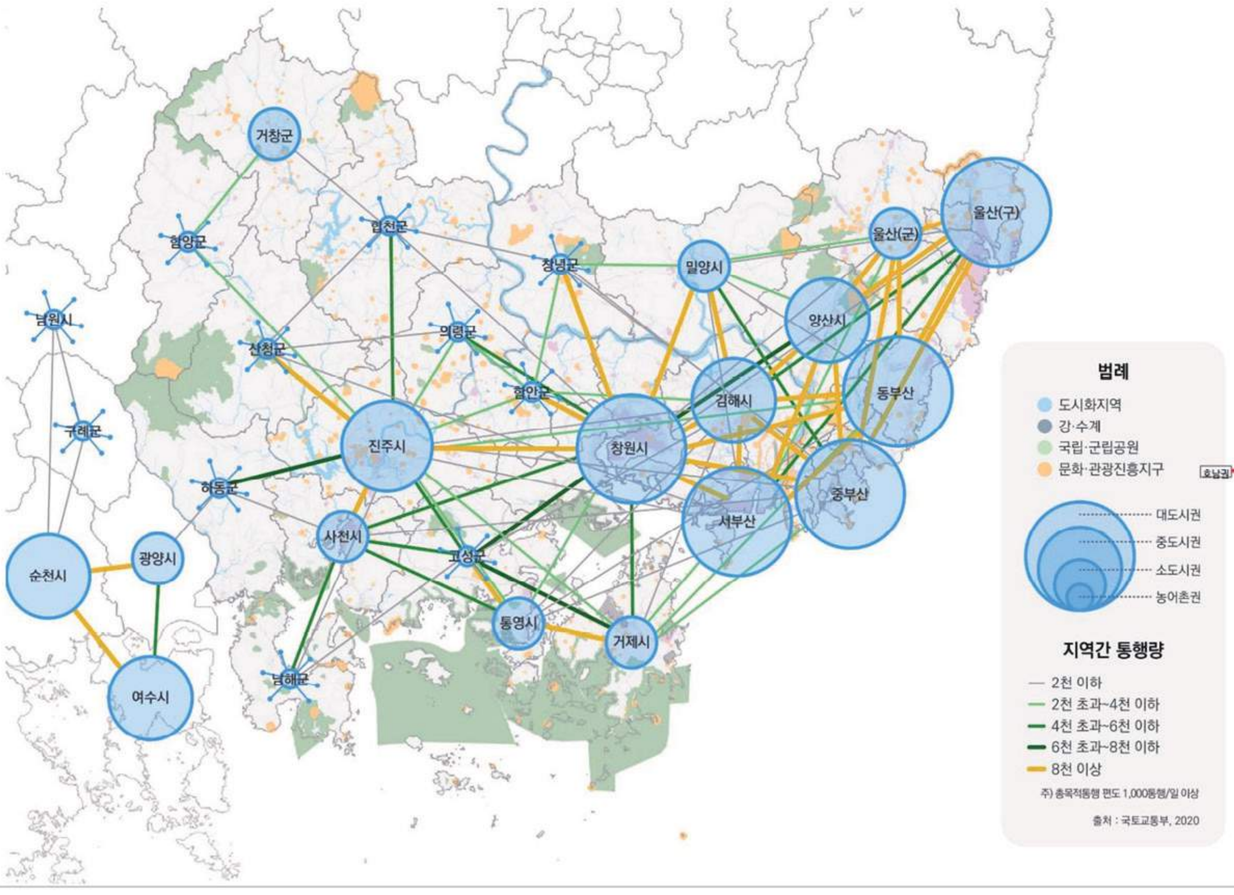
구분		개수	포함 지역
대도시권	서울인천권	34	경기도, 철원군(강원)
	대전세종권	22	충청남북
	광주권	18	전라남북
	부산울산권	**6**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
	대구권	12	경북(9), 창녕군, 합천군
중소 도시권	춘천권	7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속초권	3	고성군, 양양군
	강릉권	3	동해시, 삼척시
	정성권	2	태백시
	제천권	3	충주시, 단양군
	서산권	2	태안군
	군산권	2	서천군
	전주권	13	전북 일부
	순천권	5	광양시, 여수시, 구례군, 고흥군
	진주권	**4**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통영권	**3**	**거제시, 고성군**
	포항권	2	경주시
	안동권	4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주권	2	봉화군
	문경권	2	상주시
권역 미포함		10	강원도 일부, **의령군,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 하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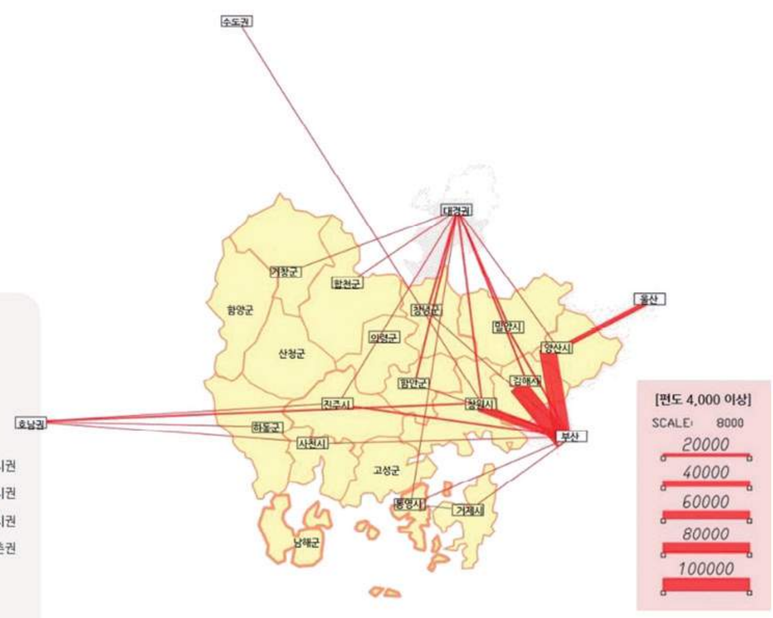
출처 : 김도형·우명제(2019), 기능적 상호작용에 따른 도시권 설정과 성장관계에 대한 연구

공동 생활권의 형성

- **동남권 각 시도별 외부 통행량**



〈경남과 외부와의 광역 통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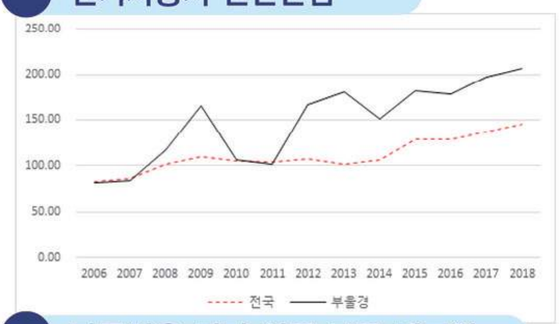
주) 총 목적통행 편도 4,000통행/일 이상

동남권의 밀접한 산업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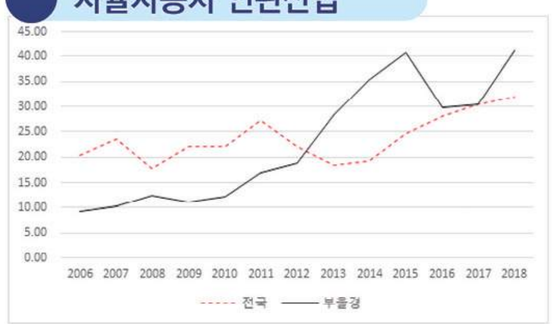
- 조선-자동차 최종재 생산 기업과 공급기업(부품 및 소재) : 조밀한 네트워크 구조
- 조선, 자동차(선도기업), 기계(부품), 건설(공장설비), 철강금속-석유화학(소재) 공급사슬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 구성
- 미래자동차 관련 동남권 소재 기업 자본집약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함

연관산업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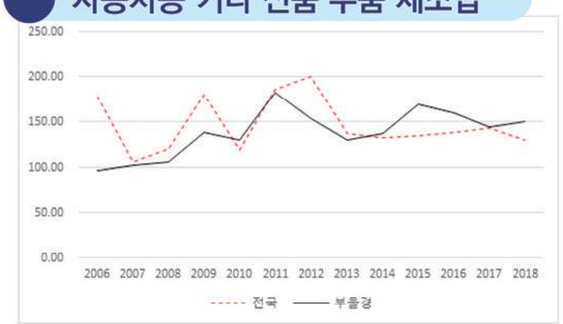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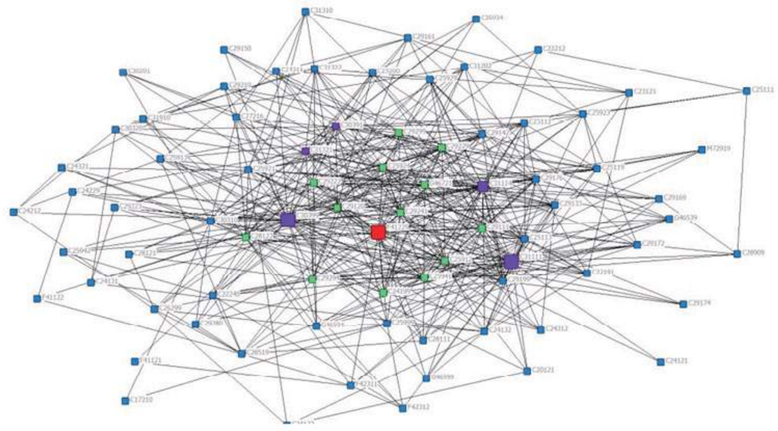


자율자동차 연관산업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출처 : 남종석, 송영조, 김진근(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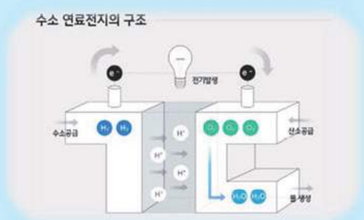
그린뉴딜로 동남권 제조업 르네상스

- 현재 : 동남권 주력산업의 위기 : 후발주자의 추격과 고임금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 환경변화 : 기후위기의 위기요인과 기회요인

위기요인 → 화석연료, 에너지 多 소비형 산업 → 좌초자산

기회요인 → 세계 최고의 제조역량 : 발전-조선-자동차 중장비 공급생태계 완비

기회요인 → 배터리-연료전지 기술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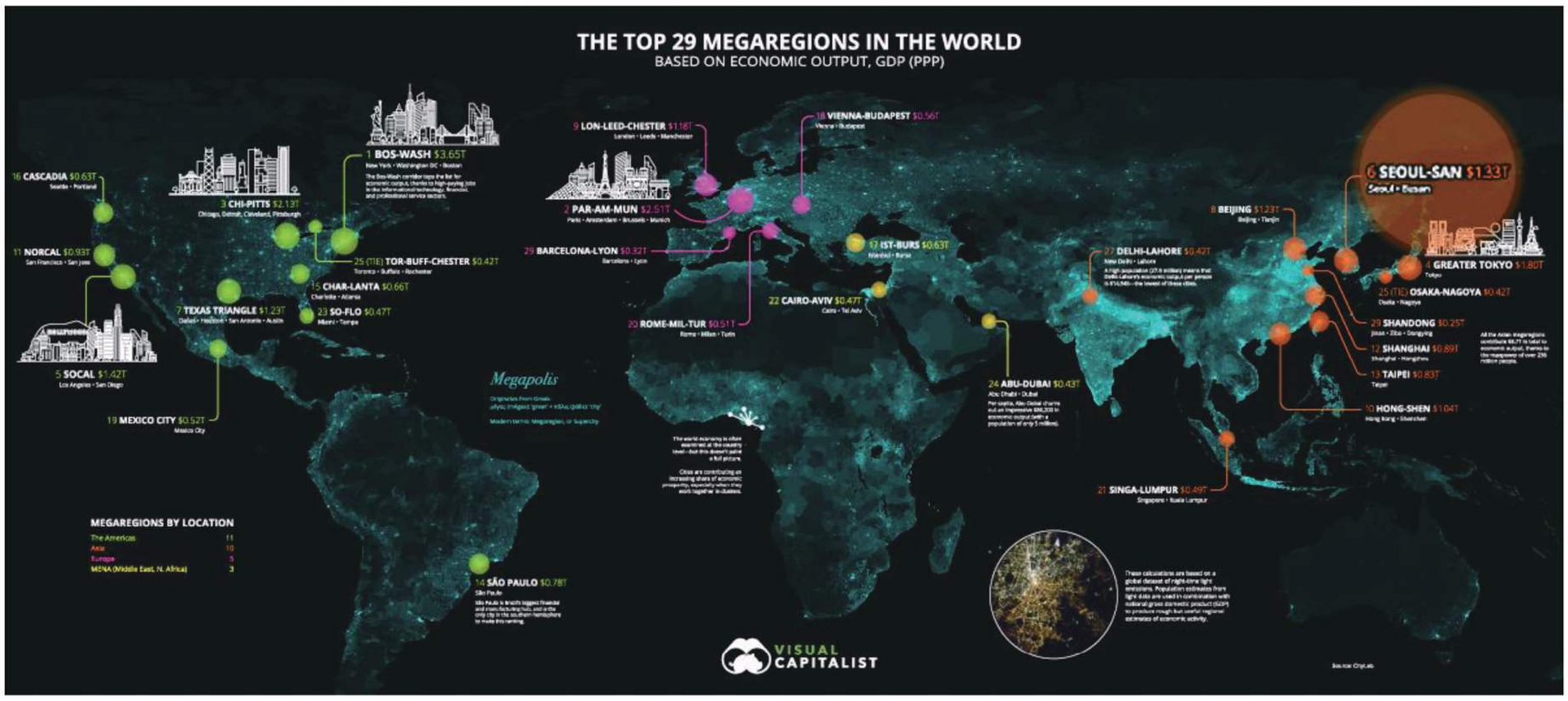
- 미래 : 성공적인 에너지체제 전환
  미래 모빌리티(미래자동차,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플랜트, 건설중장비 시장 세계적 선도

이미지 : 한화토탈 공식 블로그, 현대자동차 TECH ARTICLE

동남권 메가시티의 국제적인 평가

전 세계 주요 메가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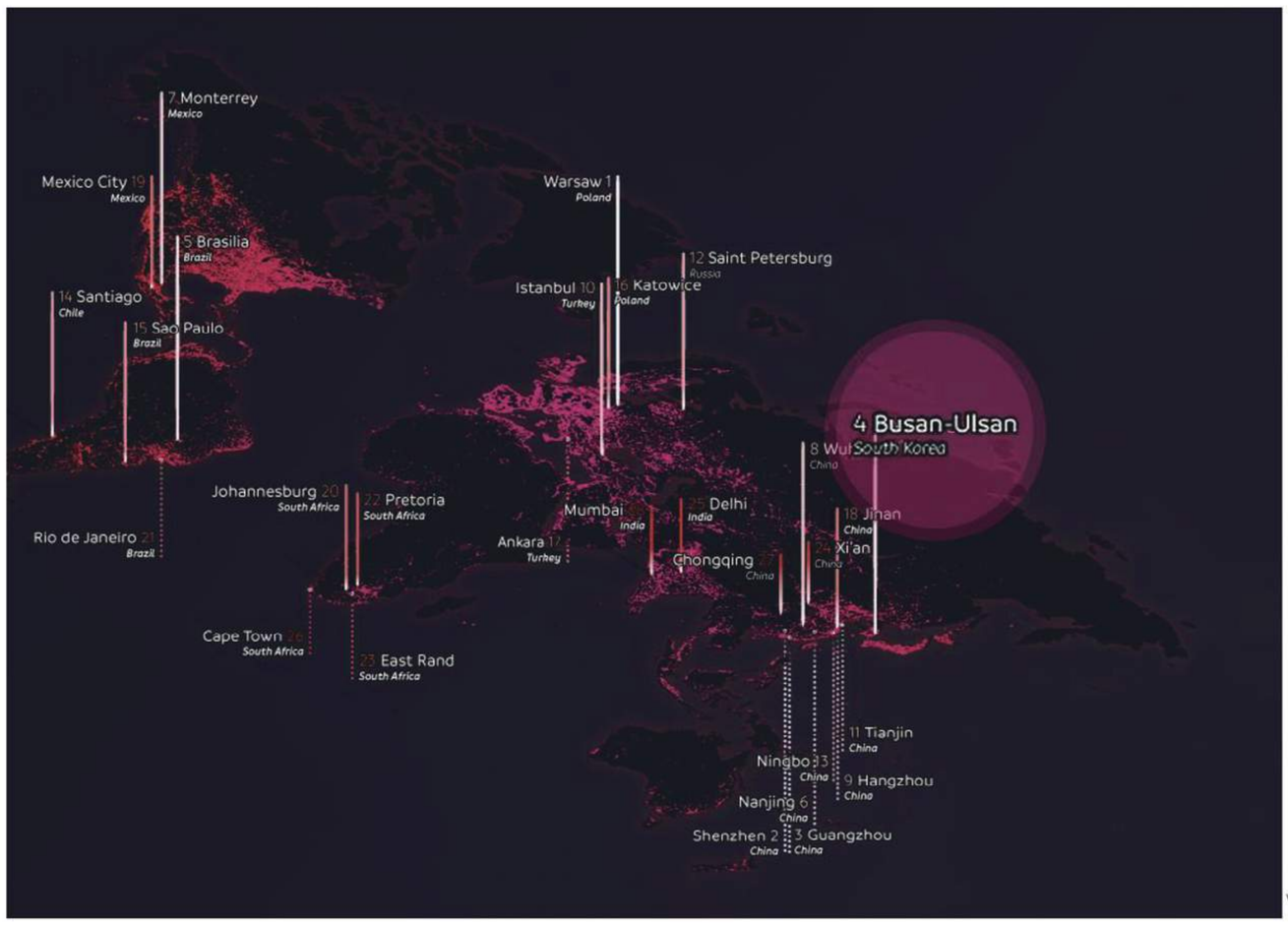
- **전 세계 29개의 메가시티 중 서울-부산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소개됨**



출처 : Visual Capitalist, 2019. 38

메가시티 성장 가능도시

- **전 세계 7개 유형의 메가시티 중 28개 도시를 Emerging Gateways로 칭하면서 부산-울산이 포함됨**



Visual Capitalist, 2017. 39

전세계 도시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평가 – MERCER

	2017년	2018년	2019년
1위	빈(오스트리아)	빈(오스트리아)	빈(오스트리아)
2위	취리히(스위스)	취리히(스위스)	취리히(스위스)
3위	오클랜드(뉴질랜드)	오클랜드(뉴질랜드)	밴쿠버(캐나다), 뮌헨(독일), 오클랜드(뉴질랜드)
서울	76위	79위	77위
부산	92위	93위	94위

서울과 부산은
도시 내부 안전항목에서
우수한 점수 획득

국제회의 개최건수 (2018) – UIA

	국가	도시
1위	싱가포르	싱가포르
2위	한국	서울
3위	일본	도쿄
4위	한국	부산

야간 위성사진에 나타난 동북아 메가시티

자료: EOSDIS Worldview(https://worldview.earthdata.nasa.gov/)

동북아시아 8대 메가시티 비교

* 국내자료는 2020년 통계청 기준 / 중국과 일본의 경우, 2018,2019년 기준

	동남권(한국)	징진지(중국)	창장삼각주(중국)	주장삼각주(중국)
면적(㎢)	1만 2400	21만 6000	35만 8000	5만 6000
인구(명)	792만	1억 1247만	2억 5000만	7125만
국내총생산(GDP,달러)	2495억	1조 2463억	3조 3381억	1조 6418억
1인당 GDP(달러)	3만 1500	1만 4600	1만 6200	2만 3300
주요산업	제조업 / 물류	첨단 제조업 / 서비스업	가공 / 전자 / 서비스	금융 / 제조 / IT

	수도권(한국)	간토권(일본)	주부권(일본)	긴키권(일본)
면적(㎢)	1만 1800	3만 6900	6만 6800	2만 7300
인구(명)	2592만	4436만	2119만	2047만
국내총생산(GDP,달러)	8929억	2조 154억	8978억	7778억
1인당 GDP(달러)	3만 4450	4만 1391	3만 9615	3만 5953
주요산업	정보통신 / 금융	첨단제조/도소매	제조 / 항공	문화관광 / 의료

출처 : 통계청, 중국국가통계국, 동방재부망, 2019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등

IV

동남권 메가시티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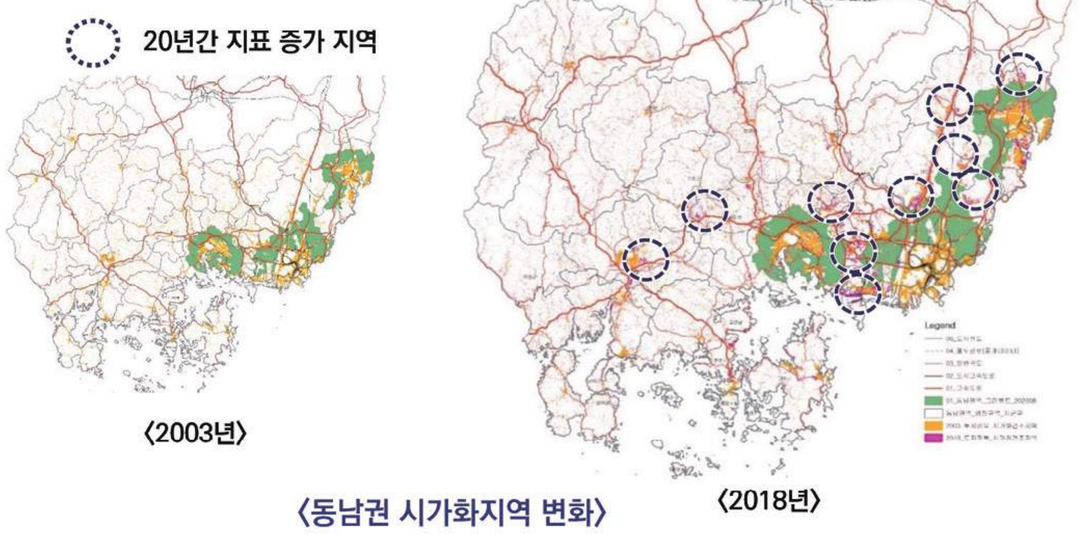
01 동남권 메가시티 개념

글로벌 성장이 가능한 인구규모 및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권역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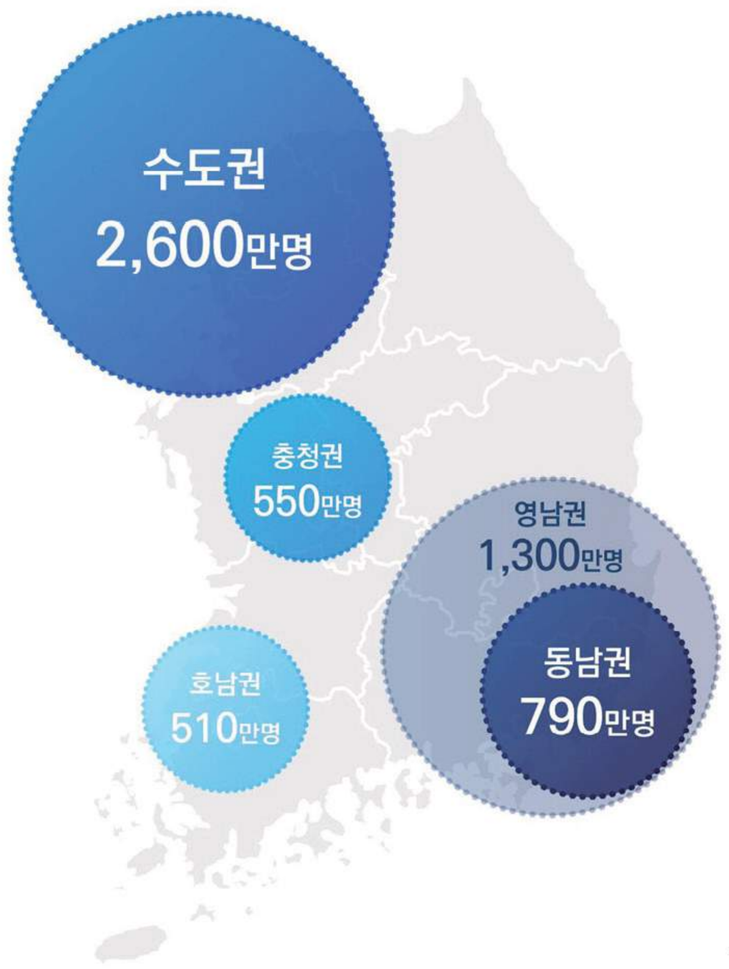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단일 경제권

-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가 되어
  동북아시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작동 환경

국토와 지역 성장의 모멘텀



〈동남권 시가화지역 변화〉



01 동남권 메가시티 개념

유연한 네트워크형

- 행정구역을 넘어 거점도시로 뭉치고 영향권을 네트워크
- 대도시권(부산, 울산, 창원)을 중심으로 중도시권(김해, 양산 등), 소도시권(밀양 등) 연계
- 주변 광역권(영남권)과의 유연한 네크워크
- 서부경남의 중도시권(진주), 소도시권(사천) 등 확장 가능한 도시의 기능 중심 광역체계 형성

기초단위 — 삶의 질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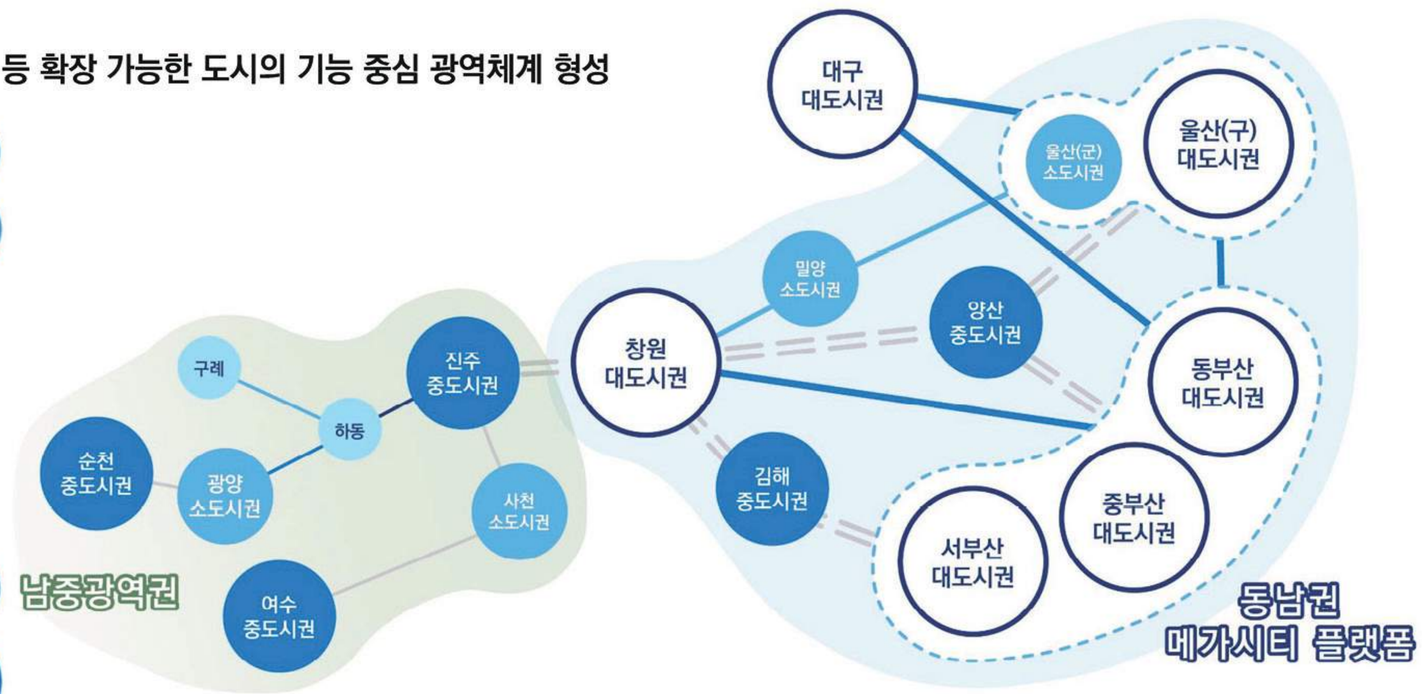
광역단위 — 행정구역 중심

지방성장을 견인할 공간단위

유연한 광역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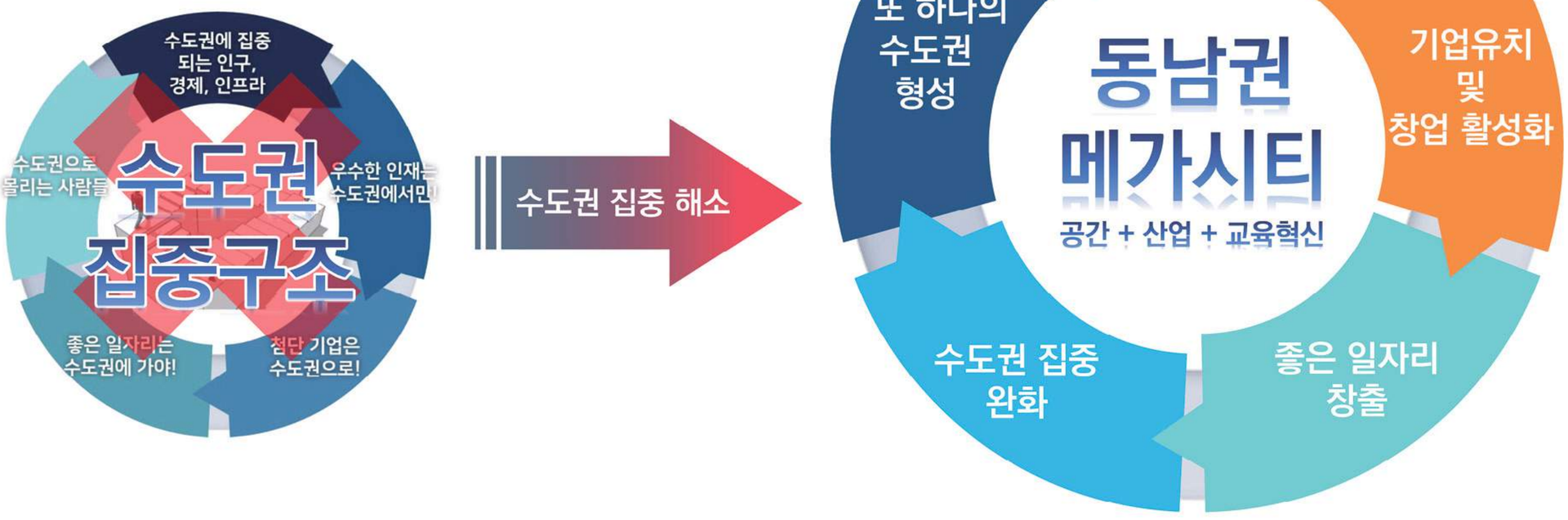
거점도시 (뭉치기 (Compact)) + 영향권 (연결하기 (Network))

- **도시는 대권, 중권, 소권, 농어촌권으로 구분**
  - ✓ 대권(5) :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 울산(구), 창원
  - ✓ 중권(5) : 진주, 김해, 양산, 여수, 광양
  - ✓ 소권(9) : 울산(군), 사천, 거창, 산청, 거제, 통영, 밀양, 구례, 하동
  - ✓ 농어촌권(7) : 함양, 합천,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함안



01 동남권 메가시티 개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힘의 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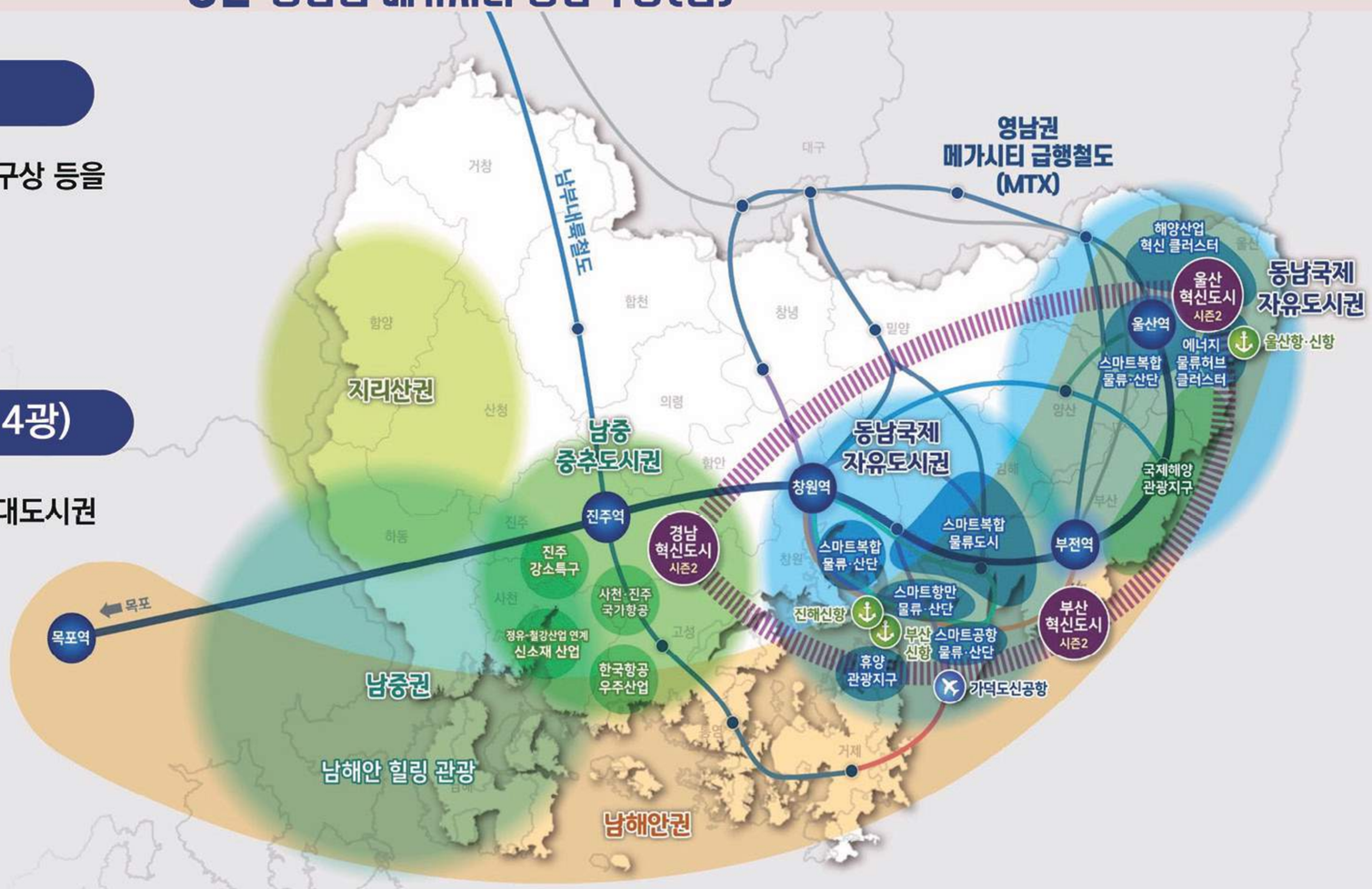
02 동남권 메가시티 공간 구상(안)

동남권 메가시티 발전축

- 시가지의 확산방향, 각 시도의 공간구상 등을 감안한 도시발전축 형성
- 동서의 내륙발전축을 중심으로 남북, 해양 발전축 연계

도시권, 광역권 형성 (3대 + 4광)

- 3개의 대도시권 : 부산, 울산, 창원 대도시권
- 4개의 광역권 연계
  -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 남해안 광역권
  - 남중 광역권
  - 지리산 광역권



03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및 목표 수립

비전

동북아시아의 8대 메가시티, 부·울·경 One Team

핵심가치

- 포용
- 번영
- 지속 가능성
- 삶의 질
- 자치분권
- 안전

목표

- 생활공동체 '형성'을 통한 공유와 통합의 정책사업 추진
- 경제공동체 '실현'을 통한 지역과 국가의 재도약 실현
- 문화공동체 '형성'을 통한 함께 누리는 문화권 조성
- 행정공동체 '구축'을 통한 자치분권의 선도모델 제시

핵심전략

- **확장성**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
- **정체성** 동남권 고유의 정체성 확립
- **연계성** 기능별 다핵 네트워크 형성

03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및 목표 수립

Ⅳ. 동남권 메가시티 기본구상

2040년 동남권 메가시티

-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진입
- 인구 792만→1,000만
- GRDP 275조→ 491조
- 통행시간 30분대 생활권
- 외국인 관광객 200만 → 1,000만
- 동남권 행복지수 A등급 달성
- 재정자립도 50.3% → 60%
- 청년 인구 순유입 +α

04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계획 구상

성공적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01 행정공동체 기반 마련 :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동남권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 마련**
  - 동남권 전체의 광역행정을 담당할 책임 주체 확립
  - 교통, 안전, 환경, 산업, 의료 등의 분야별 추진체계 마련

02 생활공동체 기반 마련 :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동남권 주민이 실질적인 단일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 1일 생활권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신교통 수단 도입
  - 교육, 안전, 건강, 먹거리 등을 공유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03 경제공동체 기반 마련 :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동남권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기존 산업 연계 및 신성장 산업 발굴**
  - 물류플랫폼 구축, 제조업 혁신 등 동남권의 강점 산업의 동남권 연계
  - 수소경제권,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의 신성장 산업 발굴

04 문화공동체 기반 마련 :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반 마련

- **동남권의 관광 및 문화, 자연 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반 마련**
  - 부산 월드엑스포의 동남권 연계 지원으로 성공적 유치 환경 조성
  - 동남권의 문화자산 확대 및 역사·문화·자연자원 연계로 광역관광벨트 구축

04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계획 구상

V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공동체 조성방안

문화공동체 조성 방안

여건 및 필요성

- (엑스포)BIE 등록엑스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로 국내에선 아직 미개최
- (문화)동남권의 국제적 문화예술 자원의 연계로 시너지 극대화 가능
- (관광)동남권은 지리, 역사, 생태적 유사성이 높아 연계관광 여건 확보
- (홍보마케팅)동남권 개별 마케팅으로 인한 경쟁력 및 외국인 유치 한계

기본 방향 및 전략

- 부산 월드엑스포 성공적 유치를 통한 동남권의 국제도시 브랜드 구축
- 동남권의 영상, 음악 등 연계, 문화경쟁력 강화 및 아시아 문화허브 도약
- 동남권 공간, 테마 유사성을 연계하여 광역관광벨트 조성 및 체계 구축
- 동남권 국제관광 인지도 강화를 위한 통합 관광마케팅 체계 추진

동남권 단일 문화권 기반 조성 필요

동남권 단일 문화권 기반 조성

부산 월드엑스포 동남권 공동 대응체계 구축

동남권 아시아 문화 허브 구축

동남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동남권 통합 관광브랜드 개발

- 동남권 역사문화 관광벨트
- 동남권 글로벌 해양관광 복합벨트
- 동남권 생태·휴양 특화 관광벨트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 → 동남권 문화공동체

01 엑스포 동남권 국제도시 브랜드 구축

(주요사업)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동남권 공동 대응체계 구축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동남권 3개시도가 공동대응태세 구축

01 (가칭)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위원회 구성 · 운영

-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시도지사 공동회장), 동남권발전협의회(민간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
- 2030월드엑스포 유치 연구지원위원회 연구위원회 분과 활동 지원 – 4개 분과: 주제개발, 지역개발, 마스터플랜, 홍보

02 2030 부산 월드엑스포 홍보부스 및 '동남권관' 운영

- 2021년~2023년까지 부울경 대표 축제 개최시 엑스포 유치 홍보부스 설치·운영 – 홍보물 및 리플렛 배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홍보 동영상 상영 등
- 2023년 현장실사 기간에 '부산 월드엑스포 홍보관' 개관식 진행 및 홍보관내 동남권 생활, 경제, 문화공동체를 소개하는 '동남권관' 운영

03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주제 관련 동남권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인류공존과 번영을 위한 지혜의 공유'라는 주제로 2023년 현장실사에 기간에 맞춰 국제심포지엄 개최 – 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참여 제고

04 2030 부산 월드엑스포 팸투어 공동 기획 · 운영

- 서울주재 외신기자,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실시
- 부산을 중심으로 기획, 부산 인근 경남–울산 대표관광지와 연계하여 기획

02 문화 동남권 문화경쟁력 강화

(주요사업) 동남권 아시아 문화 허브 구축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영상·공연 등 문화콘텐츠 및 도시브랜드를 활용·연계하여 아시아 문화 허브로 구축

01 동남권 아시아 문화 허브 비엔날레 순환 개최

- 비엔날레 추진위원회 공동 구성 및 운영
  - 개최지역이 대표 위원장을 담당하고, 다른 두 지역은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 운영
  - 기획 전 과정에 각 지역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획하고 운영, 기존 한류 콘텐츠 이외에 독자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테마 발굴
- 동남권 아시아 문화 허브 비엔날레 공동 기획 및 개최·운영
  - 첫 순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활용, 축제 개최 기간에 영화 이외의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3지역의 콘텐츠 콘서트장을 운영
  - 지역별로 2년씩 순환 및 10~11월 2개월간 개최
    - 부산, 울산, 경남이 순차적으로 대표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각 지역으로 비엔날레의 경제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02 동남권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문화자산 확대

- 동남권에 구축된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 콘텐츠 및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남권 주민들의 문화자산 확대
- 동남권 시도 예술단의 공동 공연프로그램 추진, 전시·이벤트 등 시도별 특색있는 콘텐츠를 공동 및 순회 개최하여 문화향유권 증대

02 문화 동남권 문화경쟁력 강화

V.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계획

(주요사업) 동남권 아시아 문화 허브 구축

03 동남권 청년문화 교류 거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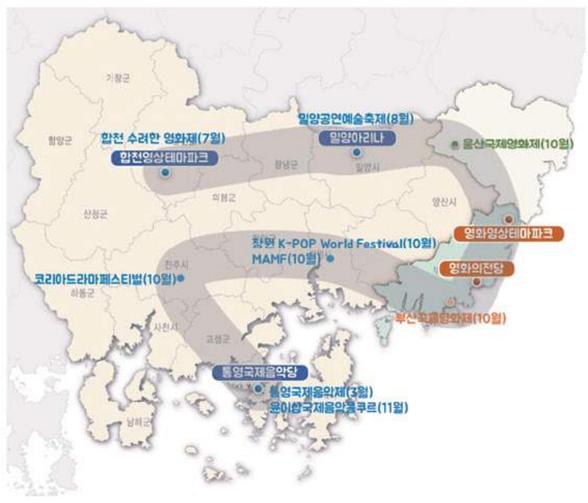
- 부·울·경 청년문화 교류 거점 마련
  - 부·울·경 청년문화 협의체 (가칭. 부울경 청년문화 협의회)
  - 부·울·경 청년문화 센터 및 활동 공간 조성 및 지역 청년문화 기획자 발굴·육성
- Beyond 부·울·경 청년문화 교류의 장 확대
  - 부·울·경, 아시아 청년문화 포럼, 박람회 기획 및 개최
  - 부·울·경, 아시아 예술문화 경연대회 확대 및 공연 문화 교류 K-pop 댄스, 영화영상, 전통악기연주,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등 다양한 예술분야 교류
  - 부·울·경, 아시아지역 청년 대상 교육, 실습, 영화제작 등 교류 확대

04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동남권 한달살기 프로젝트

- 테마+체험+교육·연수+숙박+교통 연계 원스톱 패키지 구성

  (예시1, K-음악) 창원 SM타운 연계 교육·연수+경남·부산·울산 문화예술 체험+부산·울산 BTS 아미 성지 방문 등

  (예시2, K-영상) 부산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연수+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참가 및 합천 영상테마파크 촬영 체험 +부산 국제도시 야간관광+울산 국제영화제+섬머페스티벌 참가
- 동남권 한달살기 안내·지원센터 건립 및 음악마을, 영화마을 등 문화예술 마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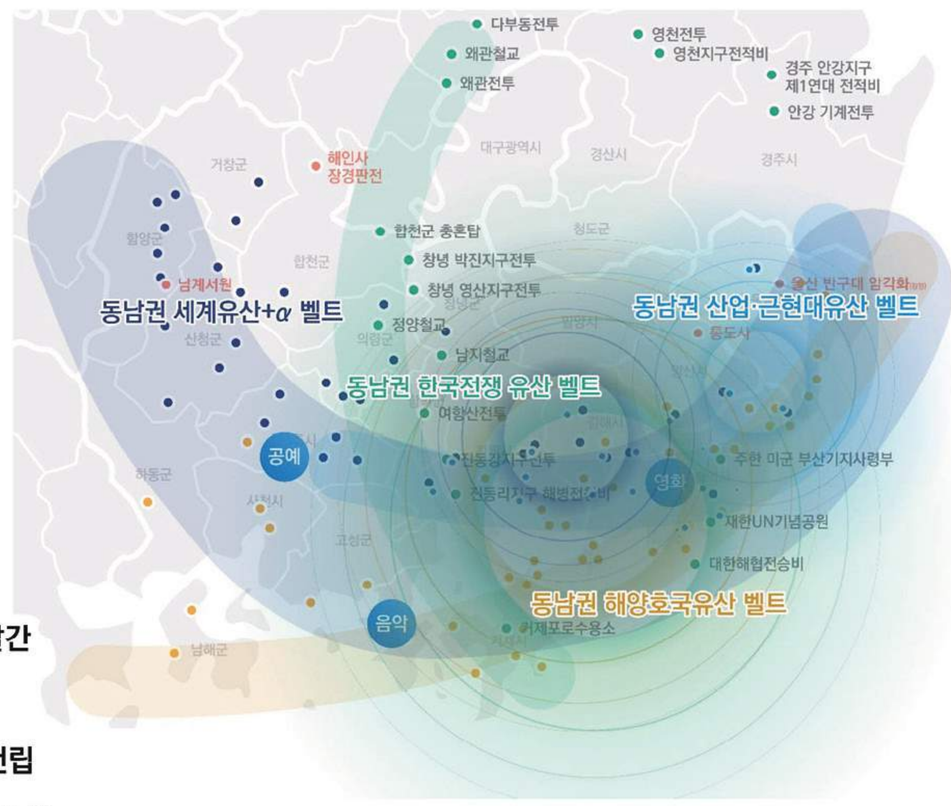
03 관광 동남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및 체계 구축

V.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계획

(주요사업1) 동남권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동남권의 사기(士), 의기(義), 화기(和), 활기(活) 등 특색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시대, 테마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 세계유산: 남계서원, 해인사 장경판전, 반구대 암각화 등



- 역사문화유산 자원 발굴·정비사업
  - 동남권에 산재해 있는 자원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및 관광콘텐츠 발굴
  - 역사문화유산 발굴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체계 확립, 유산자원집 및 스토리 북 발간
- 해양 플로팅(Floating) 뮤지엄 건립 “사·의·화·활 아카이브”
  - 자연과 역사문화유산의 조화를 경험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뮤지엄 건립
  - 동남권의 역사문유산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통한 스토리 형태 조성
- 기억의 순간(Moment of memory) 로드 조성 “사·의·화·활 기억 로드”

03 관광 동남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및 체계 구축

(주요사업2) 글로벌 해양관광 복합벨트 조성

동남권의 해양관광복합지구를 거점으로 해양관광인프라·콘텐츠 확충 및 광역관광교통체계를 연계하여 글로벌 해양관광 허브 도약

01 글로벌 해양관광 복합지구 운영

- 동남권에 조성된 관광단지의 테마 차별화를 통해 특화 자원 조성
  -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 관광, 상업, 생활이 공존하는 사계절 체류형 해양관광도시(사계절 야외 인공서핑장 추가)
  - 울산 강동관광단지 : 울산의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해양 복합 관광도시(생태·힐링+해양)
  -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 통영 문화 콘텐츠 기반 체류형 관광거점 및 복합 문화공간(도크 메모리얼 해양공원, 리스타트 플랫폼, 힐링센터 등)

02 동남권 해양문화자원 발굴

- 동남권 해양문화자산 조사 및 자원화 기초 연구
- 해양문화 유산에 대한 산학연 스토리 발굴 및 아카이브화
- 동남권 해수욕장 특화사업 발굴 통한 해수욕장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부산 7개, 울산 2개, 경남 11개

03 관광 동남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및 체계 구축

V.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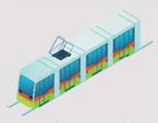
(주요사업2) 글로벌 해양관광 복합벨트 조성

03 동남권 광역관광교통시스템 구축

- 동남권에 조성된 관광단지의 테마 차별화를 통해 특화 자원 조성 : 다양한 교통수단 연계

해 상

- 동남권 광역 해상버스 및 택시
- 연안 크루즈(울산 ~ 부산 ~ 경남)



육 상

- 비치 트레일(울산 ~ 부산 ~ 경남),
- 산업관광 트레일(울산의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 부산의 신발 ~ 창원의 로봇 ~ 사천의 항공)

동남권 광역시티투어

- 공동 운영 또는 인접 지역 시티투어 이용 시 할인제도 적용

03 관광 동남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및 체계 구축

(주요사업3) 동남권 생태·휴양 특화벨트 조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남권 생태·휴양자원과 한국판 그린뉴딜 등을 활용, 동남권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콘텐츠 발굴 및 지속가능한 관광 구현

01 생태관광 명소화 및 인문벨트 조성

- 생태관광지(우포늪, 을숙도 등), 낙동강~태화강 연계 생태·탐방교육, 힐링루트 및 순환 탐방 등 추진
- 기존 낙동강 종주길, 탐방로 등을 활용하여 '낙동강~태화강 생태 인문로드(마을)' 조성
- 낙동강 생태체험관 및 소규모 방문자 센터 및 지오파크(지오트레일 탐방로, 전망대 등) 조성
- 트리하우스 설치, 그린뉴딜 모빌리티 도입(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전동퀵보드 등)
- 동남권 생태 레일관광상품 및 에코트레일 센터 운영

02 생태관광 여행자 예약시스템 구축

- 여행 변화와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비대면 서비스(온라인)를 데이터 기반 구축, 동남권 생태관광 예약시스템
- 생태여행객 예약 시스템 개발 : 기존 생태관광지 해설, 해수욕장 혼잡도, 향후 한국관광공사 여행예보시스템 등 활용
  - 동남권 생태관광지(해설 등 관련 체험 연계) 사전예약, 생태관광지 관련 시설 정보 제공 및 동남권 생태관광연계 예약
    예) 철새도래지 및 떼까마귀 군무 관련 자연환경해설사 예약 및 생태탐조 투어 등
- 예약시스템 홍보 및 이벤트 : 생태관광 행동강령 제시, 미션 수행한 후 그린마일리지 적립 및 지역에 환원 상품 구매

03 관광 동남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및 체계 구축

V.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계획

(주요사업3) 동남권 생태·휴양 특화벨트 조성

03 경남, 부산지역 국가정원 조성 및 지정

- 삼락생태공원 지방정원 조성 및 국가정원 지정 추진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 거제 동부면 구천리 일원
- 동남권 국가정원 협의회 구성

04 동남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 동남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
- 동남권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 3개 시·도(경남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부산 삼락생태공원 등) 테마정원 조성
- 국내·외 정원산업 전문가 초청강연 및 민간정원 전시회 개최
- 정원산업 전시 및 판매(식물 ·원예 자재, 정원도구, 정원용품 등)
- 지역 생태정원 체험부스 설치 및 운영
- 야간 빛 정원 조성
- 국제정원학술심포지엄 개최(조경·생태, 교육, 전시 및 사진 등)

[지역별 특징]

(부산) 삼락생태공원

- 강변공원으로 낙동강하구 둔치 중 가장 넓은 지역
- 조류 서식지, 체육시설, 야생화단지, 산책로 등이 갖추어진 곳
- 부산김해경전철, 시외버스터미널 등 인근 위치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 도심속 정원
- 꽃: 봄–양귀비, 작약, 라벤더 등, 여름–무궁화, 해바라기 등, 가을– 코스모스, 핑크뮬리 등, 겨울–동백 등
- 축제: 태화강봄꽃대향연(5월), 태화강연등축제(4~5월), 대화강대숲남량축제(8월)

04 홍보마케팅 동남권 통합관광마케팅 체계 구축

(주요사업) 동남권 통합관광브랜드 개발

동남권의 특성 반영 및 관광매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통합 관광브랜드 개발, 지역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01 동남권 통합 관광브랜드 개발

- 동남권 이미지 분석 및 시도별 공통 키워드 도출
- 최종 선정된 디자인을 기본으로 동남권 관광홍보 마케팅 활용방안 수립
- 동남권 브랜드 슬로건 SNS 이벤트 개최

02 지역주민 할인제 도입

- 동남권 지역주민에게 관광지 및 문화예술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혜택 제공
- 할인제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03 동남권 광역관광 공동마케팅 실시

- K-Travel Bus 운영
-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 동남권 관광객 휴가비 지원
- 동남권 관광지 브이로그 공모전 실시 및 동남권 공동 홍보 영상·책자 제작

[경상남도]

경상남도 GYEONGNAM

[동남권광역관광본부]

[부산광역시]

Dynamic BUSAN

마스코트_부비(BUBI)

[울산광역시]

ULSAN THE RISING CITY

메인캐릭터_해울이

보조캐릭터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좌장

윤 성 호(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산

토론 1 | 가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같이 해요!

김 정 주(가치예술협동조합 대표)

울산

토론 2 | 실제적인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협력을 위한 방안

서 정 민(울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경남

토론 3 | 경남문화예술심리백신 '온스프링'을 사례로

장 원 재(사회적협동조합 김해문화네트워크 이사장)

부산

토론 1 | 가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같이 해요!

김 정 주(가치예술협동조합 대표)

문화예술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개인의 회복은 물론 사회적 포용확대, 도시재생,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와 삶을 풍요롭게 함으로 사회적 가치의 의미가 크다.

문화예술의 기획에서 우선 지역의 특성(환경, 구성원…)을 고려한 연구가 선행되어 어디에서도 적용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은 “예술을 위한 교육”에서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예술적 감수성 함양이나 예술 지식과 기술 습득 뿐 아니라 자아 성장과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까지 포함하여 사회적 연대 창출,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의 사회와 연결고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GachiART는 사회적 가치를 더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시민과 같이 상상하여 가치를 찾고 같이 창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아트를 진행한다.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인 SDGs 17개의 가치목표와 기획재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12개의 범위에서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과 예술의 사회적가치의 실현이 가능한 항목을 살피어 지역문화에 예술을 더하고자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프로젝트진행 한다.

Gachi Beach Combing

부산은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이며 해양수도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관문도시로의 관광시설확충, 도시브랜드 재고, 문화유산정비, 글로벌 축제, 관광콘텐츠 개발, 스마트 관광기반구축 등을 한다면 예술가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역 공동체는 부산시민은 물론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부산을 깨끗한 환경과 친절한 도시 이미지 그리고 다양하고 부산다운 문화예술 적 체험을 제공하여 좋은 인상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가꾸는 문화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쓰레기투기근절 생활실천, 그리고 해양 쓰레기의 폐해로 인한 생태계교란으로 인류에게도 위협이 되는 시점이 도래 하였다. 지금 이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Gachi Beach Combing은 부산의 포구(浦口)를 중심으로 지역을 학습하여 부산의 가치를 같이 찾고 해안쓰레기 수거로 자원순환의 예술 활동으로 가치를 창조하며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의 생활실천의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비치코밍과 플로깅으로 부산 각 구군별 포구 중심의 쓰레기 수거활동을 예술 활동을 더해 환경정화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 지자체에서 손이 닿지 않는 구역과 요주의 구역을 시민문화로 해결하는 프로그램

Gachi 공작소

강서구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에 위치한 Gachi공작소는 폐자원(폐지·폐목·폐플라스틱·폐가전·폐의류·폐금속·폐유리…)을 활용한 가족이 함께 작품을 만드는 가족공작소, 다회용 머그컵을 쓰자는 취지와 흙 놀이의 도자공방, 못 입는 의류의 리폼, 천연염색 등 친환경소재연구의 섬유공방, 폐가구와 폐목을 이용해 나무주방용품을 만드는 목 공방을 비롯해 예쁜 술병을 가공해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 헌 한복 천을 활용한 조각보를 만드는 업사이클링아트 프로그램진행으로 예술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해보려 한다.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폐가전을 분해해 재활용하는 도시 광산 청소년 자원순환학교, 폐자원 활용의 리사이클링아트 작품을 만들어 환경캠페인 전시를 하는 청소년 업사이클링 아트 상상공작소 등 친환경·자원순환·예술의 이해와 창의력을 키우는 프로그램과 전시공간이 있으며 더 오래쓰기위한 물물교환의 달팽이마켓, 예술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테마별로 진행하는 GachiARTalk concert를 진행하여 가치 있는 일을 같이할 사회 공동체를 구성한다.

GachiART + (Plus)

지역문제를 예술가와 주민이 같이 고민하여 문화예술로 풀어보는 프로젝트로 버려지고 부셔진 의자에 예술을 더해 고령화 마을에 설치하는 아트벤치 프로젝트. 주민들이 수거해준 사용하지 않는 세간을 활용하여 마을에 추억을 담고 꽃을 가꾸는 업사이클링 화단프로젝트, 일회용품 사용자제와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알리는 캠페인 착한작전프로젝트, 예술 활동을 하며 지역을 학습하며 가꾸는 부산 Gachi찾기 프로젝트 등 공공예술을 주민공동체와 같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아트를 진행한다.

울산

토론 2 | 실제적인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협력을 위한 방안

서 정 민(울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정부의 강력한 지역분권 정책으로 촉발된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은 그간 추진되어 온 여타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과는 규모나 실제성에 있어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이 긍정적으로 실현될 경우 수도권 중심의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실현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며, 지역민들 또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의 촉발이 지역 중심이 아닌 중앙 주도의 지역분권 정책에서 구체화되었다는 점, 그간 국내에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가 수없이 운영되었음에도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이 실현된다 할지라도 SOC 등 인프라 조성 등에 집중되어 문화 분야 소외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 부문 소외현상은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먼저 정부의 지역분권 정책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국세:지방세 비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8:2에서 7:3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지방이양일괄법 등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의 사무를 조정, 지방이양을 실행하였습니다. 지난 1차 이양(2019-2020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지역자율계정 3조 5천억원을 지역으로 이양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3조 5천억원 중 무려 4천억원이 문화 분야입니다. 11%에 육박하는 상당한 비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정부예산의 1.5~1.6% 정도임을 참고한다면 문화부문에 대한 일방적 사무이양과 그에 따른 소외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이양을 감안할 경우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에서의 적절한 대책이 없이는 지역분권과 메가시티의 커다란 파고 아래 문화정책은 소외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문화부문에 대한 (가칭)부울경문화협력추진단 신설과 '동남권 문화발전기금 조성'을 제안합니다. 조직과 사업 운영 등 기금 조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산은 지역분권 지방세 인상의 대표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율을 일정부문 분담하여 출연토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부문을 제도화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부울경통합행정조직이 출범할 경우 특별법 제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법 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토록 명시하여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의 예산을 부울경문화협력추진단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문화예산에 대한 우려는 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부문 협력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게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특히 문화부문 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공통의 목표와 공통의 사업 추진은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각 주체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악 부문'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산은 오는 2023년 부울경 최초의 오페라하우스와 부울경 두 번째 콘서트홀인 국제아트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SM타운 개관 등 한류와 콘텐츠에 대한 비전을 표명하고 있으며, 울산은 '처용'이 추구하는 '소통과 교류'의 가치를 내세워 로컬뮤직을 바탕으로 한 국제교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명 각 도시의 고민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음악'입니다.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클래식·무용·오페라 대표도시 부산, 한류전용연습공간 조성·기획사 유치 등 동남권 한류 거점으로써 경남한류클러스터조성, 동남권 로컬뮤직의 국제사회 진출과 아시아태평양 음악 분야 교류협력의 중심지 울산 등 공동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콘서트, 국제음악제, 국제뮤직컨벤션의 순환개최와 인적교류를 통해 800만, 나아가 1,000만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선도하는 음악 분야 협력 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앞서 말한 문화분야 전문조직과 예산의 안정적인 확충을 전제로 할 때에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며, 문화분야가 핵심이 되지 않고선 동남권 문화공동체는 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남

토론 3 | 경남문화예술심리백신 '온스프링'을 사례로

장 원 재(사회적협동조합 김해문화네트워크 이사장)

먼저, 부울경 광역문화재단 협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어쩌면 늘 변두리로 지내올 수 밖에 없던 부울경 문화예술의 새로운 시작이자, 로컬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 바라볼 수 있는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우리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2019년 느닷없이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이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여전이 우리를 위협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중순까지만해도 여러가지 희망을 품으면서 일정기간만 잘 참으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역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의 일상을 압박하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김해 역시 코로나 팬더믹을 삶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위기가 생길즈음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일종의 사명감들이 저를 비롯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경남문화예술심리백신'온스프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구에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이 일어났고, 그로인하여 대구시민들이 낙심하고, 격리로 인한 답답함으로 고통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역예술인들에게 동기부여되어, 첫 번째로는 이 기회에 지역의 예술인들과 공간을 알리고, 두 번째로는 대구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라인콘서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각자가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제대로 된 기획보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 전문적인 스트리밍의 상황보다는 참여하는 분들 각자의 역량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다보니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있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많은 분들이 시청과 댓글, 후원등으로 동참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적지만 마음이 담긴 약 20여만원의 후원금을 대구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소식을 경남도내 몇몇 기관들이 전해듣고 이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여 진행해보자는 의견에 이례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비롯한 10여개의 민, 관, 중간조직이 마음을 모은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각 기관과 단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창원, 진주, 통영, 밀양을 다니며 이름처럼 경남지역에 문화예술의 심리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다양한 민, 관, 중간조직의 거버넌스가 시도되었으나 주로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못했지만, 진행이 될수록 한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지역과 공간, 예술인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이 잘 나누어졌고, 방송을 시청하는 청취자들의 대부분 반응 또한 힘든 시기에 위로와 희망을 가진다는 의견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연합하고, 지쳐있는 이들이 힘을 얻고, 위기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일, 바로

문화예술만이 가지는 놀라운 회복의 영향력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위기는 꾸준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원초적 저력이 살아나는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빼앗긴 들녘의 봄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의 다음을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능으로 협력하고,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건강한 로컬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더 다양한 모양으로 확대되어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히려 조금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이 시간을 지나면서 오는 시련과 그 시련에서 오는 우리의 성장이 매우 가치로운 삶으로 드러나 질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보다 예술적인 일상과 삶으로 한 단계 성장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부울경지역 문화예술활동이 좋은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인 명확한 목표점이라 생각하며 사례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